

KLPGA

members

2015 VOL.33 11월호



SPECIAL

KLPGA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는 자리,
'명예의 전당'

COVER STORY

'BOGNER MBN
여자오픈' 우승자
하민송 인터뷰

RISING STAR

인생의
특별한 선물인 골프

안나린 인터뷰

히어로 스토리

지치지 않고 통런할 수 있는 이유,
'골프를 즐기다!'

강수연 프로 인터뷰

LIFE INFO

황금빛 아몬드초코 웨이크
에너지 음료 레시피



AROUND C.C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





LEEDONGSOO Tel: 102-3218-1000 WWW.LEEDONGSOO.CO.KR WWW.LEEDONGSOO.COM

LEEDONGSOO SPORT



30cm 앞에서도 당당한
한/겹/실/크/코/팅

- ▶ 얇지만 강력한 커버
- ▶ 덧발라도 몽침없는 강력한 밀착
- ▶ 속부터 콕 찬 보습 홀딩

BCDATION CUSHION +

비씨데이션 쿠션 플러스
한 겹으로 실크코팅한 듯 빈틈없이 매끈한 피부



Contents

KLPGA 멤버십 매거진 2015년 11월호



026



030



034



040

Section 01. KLPGA & Tour

004 / member's service

멤버스 서비스
회원 혜택과 회원 동정

010 / SCHEDULE

투어스케줄
2015 정규투어, 드림투어,
점프투어, 시니어투어 스케줄

014 / TOUR PREVIEW

투어프리뷰
미리 둘러보는 11월 KLPGA투어

015 / KLPGA NEWS

KLPGA 뉴스
KLPGA 주요 뉴스 및 공지사항

016 / TOUR NEWS

투어뉴스
KLPGA투어 소식

022 / BEST PHOTO

베스트 포토
박준석 공식사진기자가
뽑은 KLPGA투어 베스트 명장면

026 / AROUND C.C

어라운드 C.C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

Section 02. People & Story

030 / COVER STORY

커버스토리
나에게 골프란 [웃음을 주는 비타민]이다
'BOGNER MBN 여자오픈' 우승자
하민송 인터뷰

034 / RISING STAR

라이징스타
인생의 특별한 선물인 골프, 소중한 친구가 되다
드림투어 14차전 우승자 안나린 인터뷰

036 / SPECIAL

스페셜
KLPGA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는 자리,
'명예의 전당'

040 / HERO IN HISTORY

히어로인 히스토리
지치지 않고 똘똘할 수 있는 이유, '즐거는 골프'
강수연 프로 인터뷰

Section 03. Life & Communication

044 / FIT TRAINING

핏 트레이닝
맨손으로도 잘해요 I

046 / MONEY TREND

머니트렌드
올 가을 유망 투자 테마 4선

048 / member's TALK

멤버스톡
꿈임없이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을 즐기는

050 / COLUMN

명예기자 칼럼
2015 KLPGA투어 루키 36인
그 두 번째 이야기

054 / LIFE INFO

생생골프정보통
장시간 라운드를 도는 골퍼들의 일등공신,
에너지 음료 레시피

055 / FAN LETTER

그녀에게 전해주오
사랑하는 선수에게 보내는
팬들의 응원 메시지

056 / PAGODA STAR

파고다스타의 생활회화
조깅

056 / QUIZ & QUIZ

틀린그림찾기

SCHEDULE

주요 일정 및 행사안내
2015/11

NOVEMBER 2015

MON	TUE	WED	THU	FRI	SAT	SUN
26	27	28	29	30	31	1
				← 서울경제 · 문영퀀즈파크 레이디스 클래식 (드비치) →		
2	3	4	5	6	7	8
← KLPGA 2015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20차전 (무안) →		← KLPGA 2015 전국여자아마골프선수권 대회 (군산) →			← ADT CAPS Championship 2015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 →	
9	10	11	12	13	14	15
	← KLPGA 2016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예선 (무안) →			←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 2015 (레이크사이드) →		
16	17	18	19	20	21	22
	← KLPGA 2016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본선 (무안) →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 더퀀즈 presented by 코와 (일본) →		

member's service

회 / 원 / 혜 / 택

리앤리 CC

혜택

KLPGA 회원, 주중에 한하여 정상가의 50% 그린피 할인(주중 1부, 4인 1팀 기준)
당사 인터넷 회원 가입 후 인터넷 예약만 가능(전화예약 시 혜택 불가)



기간 | 2013년 5월 ~
연락처 | 031-580-9000

담당자 | 김만기 대리

위치 | 경기도 가평군 하연 운악창계로 702-24

홈페이지 | www.leenleecc.co.kr

리앤리CC는 청정지역 가평의 자연과 함께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퍼블릭 정규 18홀 골프장입니다. 전방에 구름위로 솟은 운악산의 봉과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드리워져 있어 골프와 절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리앤리의 심볼에 조화된 레드, 옐로우, 그린, 블루의 색상은 열정과 즐거움, 여유, 그리고 가평의 깨끗함과 리앤리의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져 리앤리 CC는 자연과 고객이 조화된 골프장이 고객들의 쉼터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 리앤리CC에서는 KLPGA 프로님들께 주중에 한하여 정상가의 50% 그린피 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골프

골든베이

기간 | 2014년 11월 ~

혜택 | KLPGA 회원 내장 시 주중 그린피 할인(팀 당 36만 원 / 4인 1팀 기준), 자세한 사항 담당자에게 문의

연락처 | 041-671-8000, 8100 (예약실)

홈페이지 | www.goldenbay.kr

골프사랑

기간 | 2012년 4월 1일 ~

혜택 | 골프사랑 전 여행상품(홈페이지 참조) 직원이 적용, 국내전세버스 정상요금의 10~15% 할인

담당자 | 김종석 과장

연락처 | 031-284-7777 국내 전세버스는 가족회사(주)삼일관광여행사와 연계하여 운영

골프존아카데미

기간 | 2012년 12월 ~

혜택 | 정상 판매가격에서 50% 할인(상성 / 목동지점 제외) 이용가능 지점
서울 : 공덕점, 발산역점, 중계점, 신반포점, 강남점

경기 : 서판교점, 행신점, 분당오리점, 정자동, 용인보정점, 김포사우전, 일산마두점, 남양주호평점

조건 | 1일 1회(60분) 이용 / 등록 지점에 한함

담당자 | 엄동환 대리 연락처 | 070-8640-6431

대영힐스 CC

기간 | 2012년 12월 ~

혜택 | KLPGA 회원 내장 시 주중 : 그린피 69,000원
(단, 주말/공휴일은 그린피 할인 없음)

담당자 | 서병일 대리

연락처 | 043-850-8601~3

그린피 할인을 위한 '대영힐스 CC 프로등록 신청서'를 제출

레이크힐스 용인 CC

기간 | 2012년 7월 15일 ~

혜택 | 정회원 내장 시 1인 정회원 대우,

그린피 : 정회원 23,000원 / 주중회원 100,000원

연습장 이용 시 KLPGA 정회원, 준회원 50%

담당자 | 영업운영팀 최남미 연락처 | 1588-8186

롯데 스카이하일

기간 | 2015년 5월 ~

혜택 | KLPGA 정회원 및 준회원 내장 시 주중 50% 할인, 주말 30% 할인
(김해CC 이용 시 개별소비세 별도)

연락처 | 제주(064-731-2020~2024), 김해(055-340-9001~4),

성주(054-930-9001~3)

리앤리 CC

기간 | 2013년 5월 20일 ~

혜택 | KLPGA 회원 내장 시 주중 1부 4인 1팀 기준 그린피 50% 할인,

당사 인터넷 회원 가입 후 인터넷 예약만 가능(전화예약 시 혜택 불가)

담당자 | 김만기 대리 (영업담당) 연락처 | 031-580-9021

<member's service>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매달 분야별로 세 개 업체의 회원혜택을 순서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협회 소식지에 실릴 회원분들의 많은 소식과 정보를 기다립니다. (klpgamembers@naver.com)으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주안성 CC

기간 | 2014년 2월 ~
혜택 | KLPGA 정회원 : 그린피 50%(주중, 주말),
 정회원간 2인 플레이 가능(주중, 주말), 숙소 무료제공(단, 사전요청 시 정회원에 한함)
 KLPGA 준회원, 티칭회원 : 그린피 30%(주중, 주말)
 담당자 | 유원식 실장 연락처 | 063-320-3202

보성 CC

기간 | 2015년 4월 ~ 2018년 3월
혜택 | 그린피 회원 2명까지 면제, 호텔다향 50% 할인, 레스토랑 20% 할인, 미술관 무료 관람
 연락처 | 061-804-1000 (대표전화)

서원힐스

기간 | 2014년 9월 ~
혜택 | KLPGA 회원 본인 그린피 할인 (주중 : 3만 원 / 주말 : 2만 원 할인)
 골프연습장 입점 골프아카데미 혜택
 : 국가대표, 상비군선수 연습 라운드, 쇼트게임, 타석 무료 제공
 우수선수 연습비용(라운드, 타석) 할인 혜택 제공
 연락처 | 031-941-0025 (예약실) 홈페이지 | www.seowongolf.co.kr

세라지오 CC

기간 | 2013년 8월 12일 ~
혜택 | 1) KLPGA 회원 내장 시 주중 : 25,000원 / 주말 : 105,000원
 2) 당사 회원과 동반 내장 시 주중 : 105,000원 / 주말 : 150,000원
 주말 예약은 2부에만 가능, 주말 해당일 12일 전 이후 예약 가능
 연락처 | 031-887-8780 (예약실)

스카이72 GC

기간 | 2005년 ~
혜택 | 1) 그린피 할인 : KLPGA 정회원, 준회원 및 티칭회원 중
 스카이72 GC 인터넷 회원일 경우 예약/내장 시 10% 할인
 주중 바다코스(오션, 레이크, 클래식)
 2) 드림골프 레인지 할인 :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자동타석 30%(주중), 20%(주말) 할인
 담당자 | 스카이72 GC 김형준 매니저 연락처 | 1644-7222

스프링베일 GC

기간 | 2012년 ~
혜택 | 주중 18홀 : KLPGA 회원 1명, 동반자 3명 내장 시
 회원 1명 그린피 면제(동반자 2명일 경우 50% 할인)
 주말 18홀 : KLPGA 회원 1명, 동반자 3명 내장 시
 회원 1명 그린피 50% 할인(동반자 2명일 경우 혜택 없음)
 1팀 내 회원이 2명 이상일 경우 1명만 혜택
 연락처 | 033-254-7900

신안골프레이닝센터

기간 | 2014년 7월 ~ 2015년 12월 31일
혜택 | 타석, 피3, 벙커 / 쇼트게임, 사우나 이용료 할인
 연락처 | 031-673-8853 홈페이지 | www.shinancc.co.kr

오너스골프클럽

기간 | 2014년 3월 ~
혜택 | 주중 정상 그린피의 50% 적용 (단, 주말, 공휴일은 제외)
 연락처 | 033-260-1918, 1919

옥스필드 CC

기간 | 2012년 4월 ~
혜택 | KLPGA 정회원 1명, 동반자 3명(4인 1팀) 내장 시
 회원 1명 골프장 정회원 대우(그린피 23,000원)
 담당자 | 예약실 박성민 연락처 | 033-340-7700

우리들리조트 제주

기간 | 2012년 10월 ~
혜택 | 동반자 2~3인 내장 시
 정회원 : 주중 그린피 면제, 주말 그린피 50% 할인
 준회원 : 주중 그린피 50%, 주말 20% 할인
 담당자 | 강유진 프로 연락처 | 064-766-7802 / 010-9162-0207

인터불고경산

기간 | 2014년 10월 ~ 2015년 9월
혜택 | 해당일 5일 전부터 잔여 타임에 한해 시행,
 해당일 5일 이전 예약 요청 시 팀 당 50% 1명 할인, 팀 당 2명까지 50% 할인대우
 연락처 | 1544-4222 (예약실) 홈페이지 | www.interburgocc.com

중원골프클럽

기간 | 2014년 9월 ~
혜택 | KLPGA 회원 본인 그린피 면제(4인 1팀 18홀 기준 / 27홀, 36홀 해당 없음)
 연락처 | 043-849-7920~7922 홈페이지 | www.joongwongolf.co.kr

캐슬렉스 제주 CC

기간 | 2015년 4월 ~
혜택 | KLPGA 회원 그린피, 객실 할인(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1) 회원, 동반자 그린피 할인
 2) 골프텔 객실 할인, 제주도 대회 참가 프로 예약시 객실료 별도 협의 가능
 3) 골프장 및 객실 이용 시 연습장 할인(1바구니 5천 원)
 담당자 | 주홍성 영업총괄팀장 연락처 | 064-793-6600 / 010-2697-0001

타니 CC

기간 | 2012년 ~
혜택 | KLPGA 정회원 본인 그린피 할인 : 주중 6만 원
 할인 혜택은 주중에 한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연락처 | 055-831-7010

태광 CC

기간 | 2013년 9월 9일 ~
혜택 | 퍼블릭(전 시간대, 휴일 포함) : 프로 1명 면제
 회원제(전 시간대, 휴일 제외) : 프로 1명 회원 대우
 연락처 | 070-8189-6100
 홈페이지 | www.taekwangcc.co.kr
 일반인 3명 동반 내장 시 할인혜택은 1팀 1명에 한함. 접수 시 회원증 제시

파가니카 CC

KLPGA 회원 그린피 할인(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기간 | 2015년 4월 ~
혜택 | 회원, 회원 추천인, 동반자 그린피 할인(4인 1팀 기준 / 회원은 팀 당 1인 기준)
 담당자 | 김영호 영업팀장 연락처 | 1566-6556

member's service

회 / 원 / 혜 / 택

파인비치골프링크스

기간 | 2014년 3월 ~

- 혜택** | 1) 프로 1명 + 비회원 3명 : 프로는 주중 3만 원/ 주말 5만 원
2) 동반자는 당일팀 : 정상이 / 1박 2일 팀 : 패키지가 적용 프로 4명 : 주중 50% 할인
3) 프로 추천팀은 주중 2만 원 할인(단 카트비, 캐디피는 정상)

담당자 | 문창식 대리 연락처 | 063-320-3202

포천힐스 CC

기간 | 2015년 3월 1일 ~ 12월 31일

- 혜택** | 주중 1부(~08:30 이전) : 6만 원, 일요일 2부(12:30~이후) : 8만 원
연락처 | 031-538-7000(예약실)

한성 CC

기간 | 2015년 3월 ~

- 혜택** | 주중 1부(07:30 이전) KLPGA 회원 본인 1인 그린피 면제 (4인 1팀 기준)

해비치 CC 제주

기간 | 2014년 4월 ~

- 혜택** | 프로는 골프장 회원요금, 동반자는 골프장 규정요금
연락처 | 프론트(064-766-6200), 익스프레스(064-780-8000)
홈페이지 | golf.haevichi.com (사전예약제로 운영)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

기간 | 2015년 6월 12일 ~

- 혜택** | 주중 1부 아마추어 3인 동반 시 프로 1인 그린피 50,000원,
아마추어 2인 동반 시 프로 2인 그린피 65,000원

연락처 | 051-726-0752

힐드로사이 CC

기간 | 2014년 8월 ~

- 혜택** | KLPGA 회원 본인 1인 그린피 5만 원(4인 1팀 기준)
연락처 | 예약실 033-439-3333(유선 예약만 가능)

360도 CC

기간 | 2014년 1월 ~

- 혜택** | KLPGA 회원 본인 1인 그린피 주중 50% 할인(4인 1팀 기준),
1일 1회 본인에 한하며 주중 잔여 타임에만 가능
담당자 | 윤준섭 주임(031-880-3612) 연락처 | 031-880-3600

의료

서울메디케어

기간 | 2014년 10월 ~

- 혜택** | KLPGA 회원(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1) 종합검진비 20% 감면, 비급여검사비 20% 감면
2) 연계진료 필요 시 상급종합병원 진료 의뢰 진행
의료혜택항목 : MRI, MDCT, 초음파, 위대장내시경 등 비급여 영상검사 외

연락처 | 1644-0336

홈페이지 | www.seoulmedicare.com

서울위드치과

기간 | 2014년 2월 ~

- 혜택** | 비보험 진료 10~20% 할인
담당자 | 정홍주 부장
연락처 | 010-7795-0515 (사전예약제로 운영)

세브란스체크업

기간 | 2014년 9월 ~

- 혜택** | 1) KLPGA 회원(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을 위한 패키지검진
2) 지방 고객에 한하여 KTX 편도 금액 상당의 할인 혜택 제공(영수증 지참 必)
3) 희망 고객에 한하여 검진 후 영상기록 무료 제공
4) 신속한 상담 및 예약을 위한 전담직원 배치
5) 서비스 대상자가 추가 진료 필요 시 우선진료(Fast Track) 시스템을 통해 세브란스병원으로 신속한 연계 진료 제공

연락처 | 1588-7757 (사전예약제로 예약 필수)

위치 |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빌딩 4, 5층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이스턴 치과의원

기간 | 2012년 11월 ~

- 혜택** | 구강검진 및 상담, 치료 및 사후 관리, 진료 및 수술비용 할인
담당자 | 김미경 실장
연락처 | 02-553-2804

하늘안과의원

기간 | 2012년 7월 1일 ~

- 혜택** | 안구 종합검진(50여 가지 정밀검사) 무료,
시력교정술비 혜택(라식, 라섹, 안내 렌즈삽입술, 노안수술),
ONE-DAY 수술 가능(추가비용 없음),
웨이브프론트 무료 수술희망 시 제휴 특가,
KLPGA 회원 및 임직원 대상 시력교정사술 할인

연락처 | 02-573-9779 (사전예약제로 운영)

생활/문화

군산 세빌스 호텔

기간 | 2015년 5월 20일 ~

- 혜택** | 슈퍼리얼 트윈룸, 더블룸 198,000원 → 주중 66,000원 / 주말 88,000원 / 조식 별도(15,000원)
담당자 | 김윤환 지배인 연락처 | 063-790-8082

군산 오스카스위트 호텔

기간 | 2014년 6월 11일 ~

- 혜택** | 디럭스더블 / 110,000원 → 60,000원(할인가)
디럭스 트윈 / 121,000원 → 50,000원(할인가)
스위트 더블 / 143,000원 → 88,000원(할인가)
스위트 트윈 / 154,000원 → 105,000원(할인가)
스위트 트리플 / 220,000원 → 135,000원(할인가)
로얄테라스 스위트 / 220,000원 → 135,000원(할인가)
디럭스 더블, 디럭스 트윈, 스위트 더블 2인 기준 / 조식 불포함 / 부가세 포함
한 객실 추가 투숙 시 1인당 객실요금 10,000원 / 조식 10,000원 제공

담당자 | 박진만 지배인 연락처 | 063-464-0505~6

협회 소식지에 실릴 회원분들의 많은 소식과 정보를 기다립니다. (klpgamembers@naver.com)으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호리조트

혜택

금호리조트 객실 최대 80% 할인 (지역별, 기간별 할인요금 상이)
 통영 패밀리 기준 300,000원 → 주중 71,000원, 주말 131,000원
 화순 패밀리 기준 300,000원 → 주중 52,000원, 주말 83,000원
 설악 스위트 기준 400,000원 → 주중 52,000원, 주말 87,000원
 제주 스위트 기준 500,000원 → 주중 119,000원, 주말 175,000원/ (조식2인 포함)
 <할인요금 적용기간 2015년 11월 1일 ~ 2015년 12월 30일>



기간 | 2015년 4월 ~ 연락처 | 02-737-5400
 이용방법 | 1) KLPGA 회원혜택 해당란을 통해 예약페이지 접속 후 예약 진행
 2) 예약실 유선예약 가능
 적용지점 | 통영마리나, 화순리조트, 설악리조트, 제주리조트
 홈페이지 | www.grandconvention.co.kr

사람과 자연 그리고 휴식이 있는 곳. 아름다운 추억, 금호리조트입니다. 금호리조트는 '업계 최고의 1등 서비스까지 실현'을 목표로, 아름다운 자연과 레저, 문화, 휴양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편안하고 즐거운 리조트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4개의 리조트는 국내 제일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통영, 화순, 설악, 제주에 위치하며, 그 지역의 자연환경이 돋보이도록 독특한 테마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쉼이 살아있는 공간, 추억을 수놓는 시간을 설렘으로 시작해 감동으로 기억되는 금호리조트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랜드컨벤션센터

기간 | 2013년 6월 ~ 선착순 50팀
 혜택 | KLPGA 회원 각 직계 부모, 자녀 예식, 고회연, 돌잔치 할인(계약 순서에 따라 50팀)
 담당자 | 유미영 차장, 신경선 과장 연락처 | 02-3667-9000, 7776

금호리조트

기간 | 2015년 4월 ~
 혜택 | KLPGA 회원 및 직계 가족 객실 할인(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이용방법 | 1) KLPGA 회원혜택 해당란을 통해 예약페이지 접속 후 예약 진행
 2) 예약실 유선예약도 가능
 연락처 | 02-737-5400(예약실)

까라디

기간 | 2012년 9월 ~
 혜택 | 까라디에서 제공하는 헤어, 메이크업 관련 모든 서비스, 정가의 50% 할인
 연락처 | 02-545-4000

레드캡투어

기간 | 2012년 9월 ~
 혜택 | 일반 여행 상품 최대 9% 할인, 허니문 최대 10% 할인, 직계가족, 대리 예약 등, 무이자 혜택 서비스
 담당자 | 레드캡투어 마케팅팀
 연락처 | 02-2001-4500
 기타 | 신규 KLPGA 회원의 경우, 상단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존 KLPGA 회원의 경우, ID 및 패스워드는 KLPGA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린 필라테스

기간 | 2015년 6월 ~
 혜택 | 1) 골프 컨디션닝 30% 할인, 2) 재활, 도수통증 관리 20% 할인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SK허브 A동 263호
 담당자 | 박혜치 대표 연락처 | 031-602-7840 홈페이지 | blog.naver.com.rinpilates

(주)모리엔

기간 | 2014년 4월 ~
 혜택 | 모리엔 헤어샴푸, 헤어토닉 제품 50% 할인, 본사 홈페이지 및 전화 주문 구매
 담당자 | 이준형 과장 연락처 | 051-929-6916 / 051-9733-9733
 홈페이지 | www.ks1004.kr
 기타 |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에 kpgg 가입

베니키아 호텔 문막

기간 | 2015년 4월 ~ 2016년 3월
 혜택 | 스탠다드(2인) 154,000원 → 주중 60,000원, 주말 60,000원 조식 불포함 / 부가세 포함 / 기준 투숙인원 초과 시 1명 당 10,000원 추가(7세 이상)
 담당자 | 김주선 총지배인 연락처 | 033-734-7315
 홈페이지 | www.munmakhotel.co.kr

세계골프역사박물관

기간 | 2014년 10월 ~
 혜택 | KLPGA 회원 세계골프역사박물관 관람 시 무료 입장
 담당자 | 이동은 학예사 연락처 | 02-2192-3005
 개관시간 | 월~토 : 10시 30분~19시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8 슈퍼리어타워 지하2층
 기타 | KLPGA 회원임을 밝혀주시고, 회원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member's service

회 / 원 / 혜 / 택

(주)와룡산업 와플케어 개인용 온열기

기간 | 2014년 12월 ~

혜택 | 개인용 온열기 전품목 30% 할인

- 의료용(2인용) / 소비자가 700,000원 → 할인가 490,000원
- 의료용(1인용) / 소비자가 550,000원 → 할인가 385,000원
- 고급형(2인용) / 소비자가 550,000원 → 할인가 385,000원
- 고급형(1인용) / 소비자가 450,000원 → 할인가 315,000원
- 실속2인용 / 소비자가 500,000원 → 할인가 350,000원
- 투어용 / 소비자가 350,000원 → 할인가 245,000원
- 소파용 / 소비자가 250,000원 → 할인가 175,000원
- 방석 / 소비자가 120,000원 → 할인가 84,000원
- 배달개 / 소비자가 150,000원 → 할인가 105,000원

절차 | 본사 홈페이지 및 전화 주문 구매

담당자 | 김선옥 실장 연락처 | 031-977-8774

홈페이지 | www.waplecare.com

기타 |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어 KLPGA가입

본 혜택은 KLPGA회원에 한하며, 이용 시 반드시 회원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웰리힐리파크(구.성우리조트)

기간 | 2012년 12월 1일 ~

혜택 | 객실이용 시 기간별 특별요금으로 제공

객실예약 | www.wellihillipark.com/partnership

객실정산문의 | 1544-8833(ARS 1번)

제주 항공우주 호텔

기간 | 2014년 5월 ~ 2015년 12월 31일

혜택 | 슈페리어(9평) : 주중 70,000원 / 주말 90,000원

디럭스(13평) : 주중 80,000원 / 주말 100,000원

객실예약 | 064-747-4900 기타 | 성수기(7/18 ~ 8/17) 별도 요금 적용

청풍리조트

기간 | 2015년 12월까지

혜택 | 객실(23㎡, 스탠다드 트윈/온돌) / 정상 요금 : 133,000원

할인요금(VAT포함) / 주중(일~목) : 60,000원, 주말(금, 토) : 75,000원

담당자 | 박중미 연락처 | 02-422-8100

LF몰 헤지스 골프, 닥스골프 할인

기간 | 2015년 4월 9일 ~ 2015년 12월 31일

혜택 | 협회 홈페이지 접속 → LF몰(www.lfmall.co.kr) 헤지스 골프, 닥스골프

정상상품 정상소비자가 대비 40% 할인 (연간 한도 120만 원 / 실구매가 기준)

연락처 | 1544-5114(고객센터)

교육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eMA

기간 | 2014년 12월 19일 ~ 2016년 12월 18일[2년간]

혜택 | 학비감면, 입학 지원

- 1) 학비 감면 혜택 : 등록금의 20% 감면
한학기 등록금 : 3,442,000원(20% 감면 시: 2,753,600원)
※ 입학금(입학 시 1회만 납부) : 467,000원
- 2) 모집정원 : 모집인원 중원 시 상호협의 하에 진행
- 3) 강사임용 : 협회회원 지원 시 특전 부여(가산점 부여 할 수 있음)

담당자 | 정경일 교수 (3408-3817, 010-9357-0680)

한국능률협회

혜택

KLPGA 회원 인문소양교육 프로그램 참가 지원 및 한국능률협회 교육 신청 시 할인
KMA 리더스모닝포럼 매월 15분 초청, KMA 인사이트포럼 10분 초청,
KMA 지식맵 Edge 다운로드 등



기간 | 2015년 8월 ~ 2016년 7월 연락처 | 02-3274-9347

담당자 | KLPGA 업무지원팀 노희연 시연(02-560-4427)

신청방법 | 옆 페이지 해당 목록 참고

홈페이지 | www.kma.or.kr

특별한 강사! 넓은 네트워크! KMA 조찬회는 국내 외 명사를 초빙하여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나아가 참가자 간의 폭 넓은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MA 한국능률협회는 민법 39조에 의거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지난 54년간 1,000여 회원사를 주체로 하여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 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 KMA 리더스모닝포럼에서는 차세대 핵심리더들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원주 5개 권역에서 개최되는 KMA 인사이트포럼에서는 트렌드 리더들을 위한 인문학적 통찰력을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 소식지에 실릴 회원분들의 많은 소식과 정보를 기다립니다. (klpgamembers@naver.com)으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3408-3740, 3703, 3704)
홈페이지 | www.emba.ac.kr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EMA)

- 1) 모집학과 : 골프·리조트경영학과
- 2) 모집인원 : 총 00명
- 3) 전형방법 : 서류전형(면접 미실시) - 평가기준 : 적성, 경력, 성적, 연구계획서 등

파고다 어학원

기간 | 2013년 4월 1일 ~

혜택 | KLPGA 회원 매달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오프라인 1강좌 + 온라인 2강좌 무료 수강

(오프라인 강좌 (월 1과목 수강 가능))

- 파고다 어학원 4개 지점(강남점, 종로점, 신촌점, 부산점)
- 각 지점 별 등록처 직접 방문 신청 및 회원증 지참 필수
- 수강 가능 연령 30세 이하(84년 이후 출생)로 제한

(온라인 강좌 (월 2과목 수강 가능))

- KLPGT 홈페이지 → 멤버존 → 외국어교육 배너 클릭 후 수강 등록
- 수강 가능 연령 제한 없이 전 회원 가능

신청기간 | 매월 17일 ~ 익월 10일

담당자 | 고영순 대리 연락처 | 02-6907-2857

기타 | 수업(온라인, 오프라인) 진도율 70% 미달일 경우 : 1년간 지원 중단
본인이 아닌 대리인 수강이 적발될 경우 : 지원 영구 중단 (온라인, 오프라인)

※ 대리인 : 가족, 친인척, 친구 등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파고다 SCS(전화외국어)

기간 | 2014년 12월 ~ 2015년 3월 / 4월 ~ 7월 / 8월 ~ 11월 (연 3회)

혜택 | KLPGA 회원 무료 전화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 1) 모집인원 : 70명 (영어 : 50명, 일본어 : 10명, 중국어 : 10명)
- 우선순위 : 1순위(신규 신청자), 2순위(기존 신청자)
- 2) 교육기간 : 매주 월요일 ~ 금요일(주3회 교육) / 매일 06:00 ~ 24:00 중 선택
- 3) 교육지원
- 주3회 10분 교육, 매월 교육비 100% 협회 지원(인당 약 60,000원)
- 사이버강의 무료 지원 : 파고다 홈페이지 사이버강의 무료 수강
- 4) 지원기간 : KLPGA에서 개인별 최대 4개월(총 48회) 지원
- 5) 신청방법 :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담당자 E-Mail 또는 Fax로 발송

담당자 | KLPGA 노회원 사원

연락처 | 02-560-4427, FAX)02-539-6003 / nhy1021@klpga.org

홈페이지 | klpga.npagoda.com/user/main

- 기타 | 1) 70% 이상 수업을 듣지 않은 경우 자동 지원 중단되며,
출석률 미달 시점을 기산 월로 차후 1년간 전화영어교육 지원 중단(수업 연기 불가)
2) 매달 지원종단자에 대한 공석은 대기순위자로 대체 (신규모집 시 대기순위 부여)

한국능률협회(회원인문소양교육)

기간 | 기간 : 2015년 8월 ~ 2016년 7월

혜택 | KLPGA 회원 인문소양교육 프로그램 참가 지원 및 한국능률협회 교육 신청 시 할인(기타혜택)

- 1) 교육대상자 : KLPGA 회원(정/준/티칭)
- 2) 교육형태 : 매월 1회(2015년 8월 ~ 2016년 7월)
- 3) 교육프로그램
가. 리더스모닝포럼(서울) 나. 인사이트포럼(전국 5개 도시/대전, 부산, 대구, 광주, 원주)
- 4) 모집인원(선착순모집)
가. 리더스모닝포럼 : 20명 나. 인사이트포럼 : 50명
※ 우선순위 : 1순위(신규 신청자), 2순위(기존 신청자)
- 5) 교육기간 : 한국능률협회
- 6) 교육지원
매월 1회 한국능률협회에서 진행되는 포럼 참가 및 참가비 100% 협회 지원(인당 약 200,000원)
- 7) 신청방법
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로 신청
나.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E-MAIL 또는 FAX로 발송
다. E-MAIL : nhy1021@klpga.org / FAX : 02-539-6003

기타혜택

- 가. KLPGA 회원 한국능률협회 교육 신청 시 최대 20% 할인
- 공개교육(계층, 리더십, 공통, HRD, 직무, 글로벌 과정, KMAC 직무과정)
- 사이버교육(계층, 리더십, 조직, 경영, 영업, 금융, 유통, 제조, 건설, 의료 과정)
- 컨퍼런스(트렌드 세미나)
※ 홈페이지 참조 www.kma.or.kr
나. 기타 세미나 초청(명품지식 콘서트, HRD 특별 컨퍼런스, KMA 프로포즈 데이)
다. E2B 서비스(할인)

- 경비 절감(5~60%) : DHL 코리아, 한국렌탈, KT금호렌터카, 한수지 플라워
- 직원 복지(15~50%) : 슈퍼리어, 그랜드힐튼호텔, 전남관광, 드림성모안과

담당자 | KLPGA 업무지원팀 노회원 사원(02-560-4427)

- 기타 | 1) 매월 교육프로그램 및 일정 안내 : KLPGA뉴스 게시판에 공지
2) 사전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차후 1년간 교육 지원 중단
3) 교육 전 취소자 발생 시 차순위자로 대체

금융

하나카드

기간 | 2008년 ~

혜택 | KLPGA 플래티늄 카드 부가서비스

- 1) 연회비 : 신규 발급 시 초년도 10만 원, 이후 2년 차부터 연회비 평생 면제
- 2) 3개월 무이자 할부 : 할부 가능한 전기맹점에서 3개월 무이자 할부
- 3)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PriorityPassCard 발급)
- 플래티늄 카드에 한해 본인/가족 카드 자동 발급
- 4) 인천공항 허브 라운지 할인 서비스 : 플래티늄카드 소지 고객 본인 20% 할인
- 5) 여행상품 할인서비스 (지정 예약처 : 02-714-3434)
- 국제선 항공권 7%, 국내선 5%, 해외패키지 7% 할인
- 6) 발레파킹 : 인천공항 월 3회(주차비 별도), 특급호텔 월 3회(1일 3시간 무료주차)
- 7) 특급호텔 : 10~30% 할인 서비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롯데호텔, 밀레니엄 서울 힐튼 등)
- 8) S-OIL 리터당 50원 할인(LPG제외), 횡수 무제한
- 스피드메이트 엔진오일 교환시 할인(2만 5천 원)
- 9) 영화 할인 서비스(통합 월 1회) : CGV, 메가박스, 인터파크, 티켓링크 등
- 10) 놀이공원 할인 서비스(통합 연 4회) :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롯데월드, 대전꿈틀이랜드 등
- 11) 보험 : 해외여행 최고 5억 원, 휴일교통상해보험 최고 7천 5백만 원

담당자 | 하나카드 플래티늄 고객센터 연락처 | 080-220-5300

※ 2014년 6월 1일 신규 발급부터는

캐시백 적립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제공되지 않습니다.

※ 초년도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차년도부터는 면제됩니다.

※ 하나카드 신규 발급 시에만 초년도 연회비가 청구되며, 기존에 하나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 중 KLPGA 플래티늄 카드를 신청하시면 별도의 연회비는 없습니다.

김기성 세무사

기간 | 2013년 5월 1일 ~

혜택 | KLPGA 회원 및 가족을 위한 양질의 세무서비스 제공, 세무조사 지원, 이익신청 등 불복청구, 기장대행 및 세무컨설팅, 법인, 부가, 소득, 양도, 상속, 증여세 신고대행 및 상담

문의 | 김기성 세무사 연락처 | 02-516-7745

2015 TOUR SCHEDULE

투어, 꿈을 향한 무한도전!



대상포인트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종료시점

순위	이름	포인트
1	전인지	435
2	이정민	408
3	김해림	323
4	김민선5	315
4	이민영2	315

상금순위

순위	이름	상금
1	전인지	910,575,833
2	박성현	642,933,415
3	이정민	631,857,917
4	조윤지	577,162,500
5	고진영	507,748,750

New Heroine
NH투자증권 신인상포인트

순위	이름	포인트
1	박지영	1614
2	김예진	1434
3	박결	1362
4	박채윤	1285
5	지한솔	1216

평균타수

순위	이름	평균타수
1	전인지	70.35
2	이정민	70.80
3	이민영2	71.22
3	조윤지	71.22
5	배선우	71.28

평균퍼팅

순위	이름	평균퍼팅수
1	이은빈	29.89
1	전인지	29.89
3	김혜정	29.94
4	조정민	29.97
5	이승현	30.01

톱텐 피니쉬율

순위	이름	톱텐 피니쉬율
1	전인지	61.11
2	이정민	55.00
3	이민영2	52.63
4	김민선5	45.83
5	김해림	40.00



07
July

3 ~5

금호타이어 여자오픈
일정: 7월 3일 ~ 5일
장소: 웨이하이 포인트, 중국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김효주(롯데)

10 ~12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
with SBS**
일정: 7월 10일 ~ 12일
장소: 버치힐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고진영(벡스)

16 ~19

**BMW Ladies Championship
2015**
일정: 7월 16일 ~ 19일
장소: 스카이 72
총상금: 12억 원
우승자: 조윤지(하이원리조트)

23 ~26

제16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일정: 7월 23일 ~ 26일
장소: 블루헤런
총상금: 8억 원
우승자: 전인지(하이트진로)

08
August

7 ~9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일정: 8월 7일 ~ 8월 9일
장소: 오라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이정은(교촌F&B)



20 ~23

BOGNER-MBN 여자오픈
일정: 8월 20일 ~ 23일
장소: 더스타휴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하민송(롯데)

27 ~30

2015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일정: 8월 27일 ~ 30일
장소: 하이원
총상금: 8억 원
우승자: 유소연(하나금융그룹)

09
September

3 ~6

한화금융 클래식 2015
일정: 9월 3일 ~ 6일
장소: 골든베이
총상금: 12억 원
우승자: Haru Nomura

10 ~13

**이수그룹
제37회 KLPGA 챔피언십**
일정: 9월 10일 ~ 13일
장소: 페럼
총상금: 7억 원
우승자: 안신애(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

18 ~20

KDB 대우증권 CLASSIC 2015
일정: 9월 18일 ~ 20일
장소: 엘리시안 강촌
총상금: 6억 원
우승자: 박성현(벡스)

24 ~26

YTN·볼빅 여자오픈
일정: 9월 24일 ~ 26일
장소: 레이크우드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장하나(BC카드)

10
October

2 ~4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
일정: 10월 2일 ~ 4일
장소: 솔모로
총상금: 6억 원
우승자: 박성현(벡스)

15 ~18

**LPGA KEB HANA BANK
CHAMPIONSHIP**
일정: 10월 15일 ~ 18일
장소: 스카이 72
총상금: 200만 불
우승자: Lexi Thompson(미국)

22 ~25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일정: 10월 22일 ~ 25일
장소: 남촌
총상금: 7억 원
우승자: 전인지(하이트진로)

30 ~11/1

**서울경제·문영퀀트파크
레이디스 클래식**
일정: 10월 30일 ~ 11월 1일
장소: 드비치
총상금: 5억 원

11
November

6 ~8

**ADT CAPS Championship
2015**
일정: 11월 6일 ~ 8일
장소: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
총상금: 5억 원

13 ~15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 2015**
일정: 11월 13일 ~ 15일
장소: 레이크사이드
총상금: 7억 원



12
December

4 ~6

더퀀츠 presented by 코아
일정: 12월 4일 ~ 6일
장소: 일본
총상금: 미정

11 ~13

2015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일정: 12월 11일 ~ 13일
장소: 미션힐스 중국
총상금: 55만 불

종료대회

08 August

09 September

10 October

11 November

1		일정: 8월 31일 ~ 9/1일 장소: 센추리21 총상금: 7천만 원 우승자: 박지연(한국체대)	KLPGA 2015 킹스데일GC 점프투어 with SBS 15차전	
2			일정: 10월 1일 ~ 2일 장소: 킹스데일GC 총상금: 3천만 원 우승자: 임은빈(함평골프교)	KLPGA 2015 무안CCKLPGA 2015 무안CC · 울포유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20차전 일정: 11월 2일 ~ 3일 장소: 무안 총상금: 7천만 원
3	KLPGA 2015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9차전 일정: 8월 3일 ~ 8월 4일 장소: 신안 총상금: 3천만 원 우승자: 박소혜(은광여고)			
4				
5			KLPGA 2015 영광CC · 불빅 시니어투어 파이널 with SBS 13차전	KLPGA 2015 킹스데일GC 점프투어 with SBS 16차전
6			일정: 10월 5일 ~ 7일 장소: 영광 총상금: 8천만 원 우승자: 김복자 (1879프로골프단)	일정: 10월 5일 ~ 6일 장소: 킹스데일GC 총상금: 3천만 원 우승자: 김나래B
7				KLPGA 2015 무안CC · 울포유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7차전
8				일정: 10월 7일 ~ 8일 장소: 무안 총상금: 7천만 원 우승자: 김아람(용인대학교)
9				
10	KLPGA 2015 Volvik · CENTURY21CC 시니어투어 9차전			
11	일정: 8월 10일 ~ 11일 장소: 센추리21 총상금: 4천만 원 우승자: 홍희선			
12	KLPGA 2015 카이도 골프 · 삼대인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1차전	KLPGA 2015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10차전		
13	일정: 8월 12일 ~ 13일 장소: 센추리21 총상금: 7천만 원 우승자: 권보미	일정: 8월 12일 ~ 13일 장소: 신안 총상금: 3천만 원 우승자: 이정은(한국체대)		
14		KLPGA 2015 영광CC · 불빅 시니어투어 파이널 with SBS 11차전	KLPGA 2015 무안CC · 울포유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8차전	
15		일정: 9월 14일 ~ 16일 장소: 영광 총상금: 6천만 원 우승자: 한소영(MFS)	일정: 10월 14일 ~ 15일 장소: 무안 총상금: 7천만 원 우승자: 정슬기	
16				
17	KLPGA 2015 카이도 골프 · 삼대인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2차전	KLPGA 2015 킹스데일GC 점프투어 with SBS 13차전		
18	일정: 8월 17일 ~ 18일 장소: 센추리21 총상금: 7천만 원 우승자: 김아람(용인대)	일정: 9월 17일 ~ 18일 장소: 킹스데일GC 총상금: 3천만 원 우승자: 유효주(한서고)		
19	KLPGA 2015 카이도 골프 · 삼대인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3차전	KLPGA 2015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11차전		
20	일정: 8월 19일 ~ 20일 장소: 센추리21 총상금: 7천만 원 우승자: 김소희(중부대)	일정: 8월 19일 ~ 20일 장소: 신안 총상금: 3천만 원 우승자: 최주혜(대구대)		
21		KLPGA 2015 킹스데일GC 점프투어 with SBS 14차전	KLPGA 2015 무안CC · 울포유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9차전	
22		일정: 9월 21일 ~ 22일 장소: 킹스데일GC 총상금: 3천만 원 우승자: 공나연(제주남영고)	일정: 10월 21일 ~ 22일 장소: 무안 총상금: 7천만 원 우승자: 권보미	
23		KLPGA 2015 무안CC · 울포유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6차전		
24	KLPGA 2015 Volvik · CENTURY21CC 시니어투어 10차전			
25	일정: 8월 24일 ~ 25일 장소: 센추리21 총상금: 4천만 원 우승자: 김형임	일정: 9월 23일 ~ 24일 장소: 무안 총상금: 7천만 원 우승자: 김정수(21CJ오쇼핑)		
26	KLPGA 2015 카이도 골프 · 삼대인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4차전	KLPGA 2015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12차전		
27	일정: 8월 26일 ~ 27일 장소: 센추리21 총상금: 7천만 원 우승자: 안나린(건국대)	일정: 8월 26일 ~ 27일 장소: 신안 총상금: 3천만 원 우승자: 박다솜 (명지대)		
28				드림투어
29				점프투어
30				시니어투어
31	KLPGA 2015 카이도 골프 · 삼대인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5차전			종료대회



11 NOVEMBER KLPGA TOUR

미리 둘러보는 11월 KLPGA투어

숨가쁘게 달려온 KLPGA 2015시즌도 단 두 대회만 남겨두고 있다. 11월에 올시즌 대상, 신인왕, 상금왕 등 각종 부문의 1위가 결정되는 만큼 선수들의 마지막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2015 KLPGA투어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글 _ 김소현

ADT CAPS Championship 2015



‘ADT CAPS Championship 2015’가 11월 6일부터 8일까지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다. 2004년에 처음 개최돼 올해로 12회째인 이 대회는 초대챔피언인 최나연을 비롯하여 신지애, 서희경 등의 우승자를 배출해내며 명문 골프대회로 자리 잡았다. 지난 시즌에는 슈퍼루키로 주목받았던 김민선5가 연장 2홀 접전 끝에 감격적인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번 대회에서 김민선5가 디펜딩 챔피언으로 참가해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이에 맞서 이번 대회가 열리는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 소속인 안신애가 최근 우승 공백기를 깨고 우승컵을 차지한 만큼 돋보이는 활약을 기대해 본다. 이외에도 대상포인트, 상금순위 등의 점수 차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참가선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총상금액은 5억 원이며, 54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코스소개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는 바다와 드넓은 초원의 조화로 자연미를 더한 18홀(파72), 총 7,222야드의 회원제 골프장이다. 기존 수립대를 원형 그대로 보존해 해송과 대나무 숲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자연을 벗 삼아 플레이 할 수 있는 마운틴 코스와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 푸른 해운대 바다 풍경이 내려다보여 환상적인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오션 코스로 이뤄져 있다.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 2015



2015 시즌 마지막 대회인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 2015’가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용인에 위치한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로 3번째로 개최되는 이 대회는 지난 대회 때 총상금 7억 원으로 상금 규모가 커졌으며, 이번 대회도 지난 대회와 같은 규모로 펼쳐진다. 이 대회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2015 시즌의 상금왕, 대상, 신인상 등 각종 부문의 주인공이 결정되는 만큼 참가 선수들의 불꽃 튀는 마지막 경쟁이 기대된다. 지난 대회의 우승자인 전인지가 이번 대회에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다면 이번 시즌 대상과 상금왕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대회를 끝으로 2015시즌을 마무리 할 선수들의 마지막 진검승부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코스소개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은 국내 최대 54홀의 회원제 골프장이다. 동, 서, 남 코스로 구성된 골프장은 2007년 골프다이제스트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베스트코스, 2009년 골프매거진이 뽑은 10대 골프코스에 뽑히기도 했다. 모든 코스에서 울긋불긋 물든 단풍나무로 인해 즐거운 가을 플레이를 만끽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서 코스(OUT-IN)에서 진행된다.

11월 온라인 참가신청 안내

MON	TUE	WED	THU	FRI	SAT	SUN
26	27	28	29	30	31	1
KLPGA 2016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예선-정회원선발합격						
2	3	4	5	6	7	8
2015 KLPGA 정규투어(12월 대회신청)						
KLPGA 2016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본선 - 예선 면제자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2015 KLPGA 정규투어 대회별 참가인원 및 프로암, 공식연습일 일정 공지(10월 25일 기준)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참가인원과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장소, '더퀸즈 presented by 코와'의 대회 정보가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으니 선수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월	대회명	장소	프로암	공식연습일	본대회	라운드	참가인원
24	10월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	솔모로	09.30(수), 10.01(목)	09.29(화)	10.02(금) ~ 10.04(일)	3R	120명
-		LPGA KEB · HanaBank Championship	스카이72	10.14(수)	10.12(월), 10.13(화)	10.15(목) ~ 10.18(일)	4R	78명
25		KB금융 스타챔피언십	남촌	10.20(화)	10.21(수)	10.22(목) ~ 10.25(일)	4R	120명
26		서울경제 · 문영퀸즈파크 레이디스 클래식	드비치	10.28(수)	10.29(목)	10.30(금) ~ 11.01(일)	3R	108명
27	11월	ADT CAPS Championship 2015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	11.04(수)	11.05(목)	11.06(금) ~ 11.08(일)	3R	전년과 동일
28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 2015	레이크사이드	11.11(수)	11.12(목)	11.13(금) ~ 11.15(일)	3R	전년과 동일
-	12월	더퀸즈 presented by 코와	미요시(일본)	12.03(목)	12.01(화), 12.02(수)	12.04(금) ~ 12.06(일)	3R	36명
29		2015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미션힐스 중국	12.09(수)	12.07(월), 12.08(화), 12.10(목)	12.11(금) ~ 12.13(일)	3R	108명

* 위 내용은 10월 25일(일) 기준의 확정지 아닌 예정된 자료이며, 스폰서의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선수분들께서는 이 점 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KDB 대우증권 클래식 2015] 장타자의 위용 박성현, 시즌 2승



여자골프 KPGA투어 KDB 대우증권 클래식에서 박성현이 시즌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박성현은 강원도 춘천시 엘리시안 강촌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3라운드에서 장타를 앞세워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4개를 잡아내 3타를 줄였습니다. 함께 13언더파 203타를 기록한 박성현은 치열한 접전을 펼친 김혜윤 등 2위 그룹을 2타차로 따돌리고 지난 6월 메이저 대회 한국 여자오픈 우승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우승재킷을 입었습니다.

우승 상금 1억 2천만 원을 받은 박성현은 시즌 상금 5억 원을 쓸아 상금 랭킹 5위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박성현은 또 같은 챔피언즈에서 경기를 한 상금 1위 전인지의 시즌 5승도 저지하고 남은 6개 대회에서 상금왕 레이스 역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전인지는 퍼트 난조에 빠지면서 3타를 잃어 함께 7언더파로 공동 11위를 기록했습니다. 공동 선두로 3라운드에 나선 박성현은 전반엔 특유의 장타를 휘두르며 버디 기회를 만들었지만 퍼트 난조로 오히려 1타를 잃었습니다. 이 사이 김혜윤이 장거리 퍼트를 성공시키며 14번홀까지 보기 없이 버디 4개를 골라내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박성현은 후반 들어 파5, 11번홀에서 버디를 잡아 분위기를 바꾼 뒤 13번홀부터 3개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샷으로 볼을 그린 위에 올린 15번홀에서는 이글 퍼트가 살짝 빗나갔지만 탭인 버디로 마무리하면서 우승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김혜윤은 15번홀에서 짧은 파퍼트를 놓치는 실수로 1타를 잃어 박성현보다 2타가 뒤졌습니다. 박성현은 파3, 16번홀에서 버디 퍼트를 홀을 지나쳐 만만치 않은 거리에 파퍼트를 남겼지만 타수를 잃지는 않았습니다. 파5, 17번홀에서는 또 한 차례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박성현은 티샷이 오른쪽으로 밀렸지만 카트 도로를 맞고 페어웨이 한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샷으로 그린을 공략한 박성현은 이글퍼트를 너무 길게 치는 바람에 파에 그쳤지만 계속 2타차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박성현은 파3, 18번홀에선 티샷을 그린 위에 올린 뒤 2퍼트로 홀아웃하며 우승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기사제공 - SBS 정희돈 기자)

[YTN · 볼빅 여자오픈] 장하나 시즌 2승

한국여자프로골프, KPGA투어 YTN 볼빅여자오픈에서 장하나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레이쿠우드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장 하나는 2타를 줄여 최종 합계 16언더파를 기록했습니다. 공동 2위 하민송과 조정민, 김민선을 4타차로 여유있게 따돌렸습니다. 지난 6월 BC카드 · 한경 레이디스컵에서 시즌

첫 승을 올린데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KPGA 통산 8승째를 기록했습니다. 우승 상금은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올 시즌부터 미국 LPGA에서 뛰고 있는 장 하나는 아직 미국 무대 우승은 없지만



국내 대회에는 다섯 번만 출전하고도 매번 톱 5에 들면서 2승을 올렸습니다. 2주 연속 우승을 노렸던 박성현은 11언더파 공동 5위에 올랐고, 올시즌 KPGA 다승 · 상금 선두인 전인지는 8언더파 공동 19위로 마쳤습니다.

(기사제공 - SBS 서대원 기자)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박성현 시즌 3승, 상금 2위 도약



한국여자프로골프, KPGA투어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에서 장타자 박성현이 역전 우승을 차지해 시즌 3승째를 기록했습니다. 박성현은 경기도 여주 솔모로 CC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4개를 주고받으며 4타를 줄여 합계 10언더파 206타로 1타차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6월 내셔널타이틀 대회인 한국여자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박성현은 시연시원한 장타를 앞세워 인기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박성현은 지난달 KDB 대우증권 클래식 우승에 이어 2주만에 시즌 3승을 거둬 KPGA투어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승 상금 1억 2천만 원을 받은 박성현은 시즌 상금이 6억 3천757만 원으로 늘어 상금랭킹도 4위에서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올해 4개 대회가 남은 가운데 박성현은 상금 1위 전인지에 약 1억 3천300만 원 차이로 따라붙어 시즌 막판에 상금왕 경쟁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전인지는 일본여자오픈에 출전하느라 이 대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성현은 다승 경쟁에서도 4승의 전인지에 이어 나란히 3승을 올린 이정민, 고진영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김혜림에 1타 뒤진 2위로 최종라운드에선 박성현은 파5, 5번홀 버디로 공동 선두에 오른 뒤 파4, 8번홀 버디로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박성현은 10번홀(파5) 3퍼트 보기로 주춤했지만 11번홀(파4) 버디로 만회했습니다. 박성현은 13번(파4), 14번홀(파5)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김지현, 김혜림 등 추격자들을 2타차로 따돌렸습니다. 15번홀(파4)에서 3퍼트 보기로 2위 그룹에 한 타차로 쫓겼지만 17번홀(파3)에서 까다로운 버디 퍼트를 넣어 다시 2타차 선두로 나서 사실상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생애 첫 우승에 도전한 김혜림과 김지현은 나란히 9언더파로 1타차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사제공 - SBS 김영성 기자)

[KLPGA 2015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6차전] 김정수2, 생애 첫 우승!



전라남도 무안군에 위치한 무안 컨트리클럽(파72/6,422야드) 남 A, 남B 코스에서 열린 'KLPGA 2015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6차전(총상금 7천만 원, 우승상금 1천4백만 원)에서 김정수2(20, CJ오쇼핑)가

생애 첫 우승을 일궈냈다. 중간합계 5언더파 67타 단독선두로 최종라운드에 진출한 김정수2는 3번홀(파4,405야드)에서 보기를 범했으나 남은 홀에서 버디만 5개를 골라 잡으며 4타를 줄여 최종합계 9언더파 135타(67-68)로 우승을 차지했다.

김정수2는 "2년 동안, 생각한 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힘들었는데 이번 우승으로 그동안 마음고생 한 것들이 치유된 것 같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정수2는 "전반에 긴장해서 퍼트 감이 좋지 않았다. 후반에 퍼트 감이 돌아오면서 버디를 많이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2년, KLPGA 정회원으로 입회해 2013년에는 정규투어에서 활동하기도 한 김정수2는 "이번 시즌 남은 4개 대회에서 더욱 집중하여 좋은 성적을 내겠다. 내년에는 정규투어로 돌아가서 큰 활약을 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KLPGA 2015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7차전] 김아림, 시즌 4승 달성!

전라남도 무안군에 위치한 무안 컨트리클럽(파72/6,430야드) 서 A, 서B 코스에서 열린 'KLPGA 2015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7차전(총상금 7천만 원, 우승상금 1천4백만 원)에서 김아림(20, 용인대학교)이



시즌 네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중간합계 4언더파 68타, 공동 4위로 최종라운드에 진출한 김아림은 버디 9개와 보기 1개를 묶어 8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12언더파 132타(68-64)로 3타차 우승을 차지했다.

김아림은 "무안 컨트리클럽의 서코스는 정말 자신이 있었다. 예전부터 이 코스에서 라운드하면 항상 좋은 성적을 냈다. 오늘은 특히 샷이나 퍼트가 다 잘됐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쳤다."고 밝혔다. 드림투어 2차전, 8차전, 12차전에 이어 17차전까지 우승하며 시즌 4승을 달성한 김아림은 이번 시즌 드림투어가 개최되는 4개 골프장(군산CC, 선추리21CC, 휘닉스파크CC, 무안CC)에서 1회씩 우승하며 고른 기량을 선보였다. 김아림은 "잘 맞지 않는 코스에서는 방어적으로, 잘 맞는

코스에서는 공격적으로 경기한다. 어떤 코스에서 경기하든 좋은 스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김아림은 "지금 컨디션이 무척 좋지만, 앞으로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스스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드림투어 상금순위 1위 자리에 올라있는 김아림은 이번 우승으로 2위 박지연(20, 한국체대3)과의 상금액 차를 약 1천 5백만 원으로 벌였고, "상금왕도 욕심이 나지만 지금은 나와서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 남은 세 개 대회에서 우승을 한 번 더 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편, 라운드에서 단독 선두에 올랐던 전종선(21)이 최종합계 9언더파 135타(66-69)로 단독 2위를 차지했고, 이다연(18, 육민관고3)과 이채빈(26), 이정은(19, 한국체대1)가 8언더파 136타로 공동 3위를 기록했다.

[KLPGA 2015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8차전] 정슬기, 생애 첫 우승!



전라남도 무안군에 위치한 무안 컨트리클럽(파72/6,430야드) 남A, 남B 코스에서 열린 'KLPGA 2015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8차전(총상금 7천만 원, 우승상금 1천4백만 원)에서 정슬기(20)가 생애 첫 우승

컵을 품에 안았다. 라운드에서 중간합계 9언더파 63타로 4타차 단독 선두에 오른 정슬기는 최종라운드 3번홀과 5번홀에서 보기를 범하며 불안한 출발을 했지만, 후반 들어 버디 2개와 보기 1개를 묶어 최종합계 8언더파 136타(63-73)로 1타차 우승을 차지했다.

정슬기는 "어제보다 타수를 줄이지 못해서 집중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이뤄낸 첫 우승이라 더욱 값지고 기쁘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정슬기는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잡지 못하면 연장 승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3미터 거리의 버디 기회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넣겠다는 생각으로 자신 있게 쳤다."며 우승 순간을 떠올렸다. 정슬기는 "올해 목표인 첫 우승과 정규투어 진출 중 한 개를 이뤘다. 남은 목표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당찬 각오를 밝혔다. 뒤를 이어 지주현(23, MFS)이 보기 없이 버디만 7개를 잡아내는 등 맹타를 휘두르며 최종합계 7언더파 137타(72-65)로 김정수2(20, CJ오쇼핑), 채지은(22)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지난 차전 우승자이자 드림투어 상금순위 1위인 김아림(20, 용인대학교)은 최종합계 1언더파 143타(72-71)로 공동 37위를 기록했다.

[KLPGA 2015 킹스데일GC 점프투어 with SBS 13차전] 유효주, 연장 끝 생애 첫 우승!



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한 킹스데일 골프클럽(파72/6,426야드) 레이크, 힐 코스에서 열린 'KLPGA 2015 킹스데일GC 점프투어 with SBS 13차전(총상금 3천만 원, 우승상금 6백만 원)'에서 유효주(18,한서고3)가 연장 점

전 끝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선두에 1타 뒤진 공동 2위로 최종라운드를 출발한 유효주는 시작하자마자 2홀 연속 보기를 범하며 주춤했으나 이내 버디 2개로 만회했다. 후반에는 날카로운 아이언샷 감을 뽐내며 2개의 탭인 버디를 보태 최종합계 5언더파 139타(69-70)로 박은수(26, 플렉스파워), 박유라C(24)와 함께 연장전에 돌입했다. 연장 첫 번째 홀에서 침착하게 파를 지켜낸 유효주는 보기에 그친 박은수와 박유라C를 제치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유효주는 "우승에 대한 욕심이 들어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초반에 힘든 경기를 했다. 이후 마음을 비웠더니 샷, 퍼트감이 돌아왔고 우승할 수 있었다. 첫 우승이라 꿈만 같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며 감격스러워 했다.

중학교 1학년 때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한 유효주는 올해 7월, 준회원 선발전을 통해서 KLPGA에 입회했다. 'KLPGA 2015 그랜드·삼대인 점프투어 6차전'에서 4위, 'KLPGA 2015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12차전'에서 7위를 기록하며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유효주는 "현재 최경주 재단에 속해 있는데 최경주 프로님처럼 어려운 선수들에게 힘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 정회원으로 승격해서 시드순위전을 거쳐 내년엔 정규투어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다."고 밝혔다.

한편, 최수민(18,낙생고3)과 임찬희(18,제주고3)가 최종합계 4언더파 140타로 공동 4위를 기록했다.



오늘 긴장한 탓에 샷부터 퍼트까지 실수를 많이 했다.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해서 우승할 수 있었다. 무조건 넣어야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를 따라 골프를 시작한 공나연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시작했으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공나연은 "고등학교 진학 후 다른 친구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 같아서 2년동안 이를 악물고 연습했다. 이번 우승으로 그 결실을 맺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나연은 "이 우승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정규투어에서 우승하고 싶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혜민(19,한국골프대학), 김가연(23,알티잔골프), 장소연(21)이 최종합계 6언더파 138타로 공동 2위 그룹을 형성했다.

[KLPGA 2015 킹스데일GC 점프투어 with SBS 15차전] 아마추어 임은빈, 첫 우승컵 들어 올려



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한 킹스데일 골프클럽(파72/6,426야드)에서 레이크, 힐 코스에서 열린 'KLPGA 2015 킹스데일GC 점프투어 with SBS 15차전(총상금 3천만 원, 우승상금 6백만 원)'에서 아마추어 임은빈(18,함평골프

고3)이 최종합계 4언더파 140타(68-72)로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한 타 차 단독 선두로 최종라운드를 맞은 임은빈은 전반 보기 3개, 버디 1개로 2타를 잃으며 주춤했으나 후반 들어 버디 3개, 보기 1개로 타수를 만회하며 첫 승을 신고했다. 임은빈은 "욕심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가짐으로 경기했다. 경기 종료 후 친구들이 물을 뿌려줘서 우승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생각하고 있던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생각에 오히려 담담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임은빈은 "오늘 전반에 샷이 좋지 않아서 마음을 비웠다. 후반에 자신 있게 임했더니 버디 찬스가 많이 찾아왔고 퍼트가 잘 따라줘서 좋은 결과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권유로 일찍이 골프를 접한 임은빈은 10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으며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국가대표를 지냈다. 올시즌에는 아마추어 추천자 자격으로 정규투어 3개 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있으며 '2015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는 공동 58위를 기록했다. 임은빈은 "준회원을 거쳐 정회원으로 승격한 후 정규투어 시드순위전을 통해 내년엔 정규투어에 진출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아마추어 한도경(18,화산여고3), 이효린(18,울산경고), 조정현(20,홍익대2), 정슬(21)이 최종합계 1언더파 143타로 공동 2위 그룹을 형성했다.

[KLPGA 2015 킹스데일GC 점프투어 with SBS 14차전] 아마추어 공나연, 생애 첫 우승 달성!

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한 킹스데일 골프클럽(파72/6,426야드)에서 레이크, 힐 코스에서 열린 'KLPGA 2015 킹스데일GC 점프투어 with SBS 14차전(총상금 3천만 원, 우승상금 6백만 원)'에서 아마추어 공나연(18,제주남영고3)이 최종합계 7언더파 137타(64-73)로 생애 첫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2위 그룹에 3타 앞선 단독 선두로 최종라운드를 맞은 공나연은 전반 7번홀(파4,342야드)과 후반 16번홀(파4,357야드)에서 퍼트 난조로 보기를 범하며 위기에 몰렸으나 18번홀(파5,516야드)에서 버디를 낚으며 짜릿한 우승을 거뒀다. 공나연은 "꿈만 같다. 우승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KLPGA 2015 킹스데일GC 점프투어 with SBS 16차전] 김나래B, 생애 첫 우승 달성

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한 킹스데일 골프클럽(파72/6,426야드)에서레이크, 힐 코스에서 열린 'KLPGA 2015 킹스데일GC 점프투어 with SBS 16차전(총상금 3천만 원, 우승상금 6백만 원)'에서 김나래(21)가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선두에 4타 뒤진 공동 7위로 최종라운드를 맞은 김나래는 전반에 버디 2개를 낚으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후반 들어 버디 5개, 보기 2개로 3타를 더 줄인 김나래는 최종합계 7언더파 137타(70-67)를 기록하며 최종라운드에서 5타를 줄인 이효린(울산경의고)과 연장전에 돌입했다.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던 순간, 김나래가 연장 세 번째 홀에서 버디를 기록하며 파에 그친 이효린을 제치고 기쁨의 눈물을 쏟아 냈다. 김나래는 "챔피언조에 속해있지 않아서 편하게 경기할 수 있었고 마지막 대회인 만큼 연습했던 샷을 모두 보여주려고 다짐했다. 처음으로 겪는 연장전이라 떨렸지만 상대방도 똑같은 상황이기에 최대한 침착하게 즐기려고 노력했더니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기뻐했다.

유년 시절 발레에 관심을 가졌던 김나래는 아버지의 권유로 초등학교 6학년 때 골프를 접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한 김나래는 2012년 4월, KLPGA 준회원으로 입회했다. 김나래는 "올해에도 정회원이 되지 못하면 골프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 정회원으로 승격하게 돼 매우 기쁘다. 정규투어 시드순위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내년에는 꼭 정규투어에서 뛰고 싶다. 꾸준하게 활약하는 선수가 되는 것이 목표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KLPGA 2015 킹스데일GC 점프투어 with SBS 15차전' 우승자 아마추어 임은빈(18, 함평골프고3)이 최종합계 6언더파 138타(69-69)로 3위에 올랐다. 한편, 점프투어 4개 대회(13차전~16차전)에 모두 출전하고 평균 타수 74타 이내에 든 준회원 중 상금 순위 상위 14명이 정회원으로 승격됐으며, 평균 타수 79타 이내를 기록한 아마추어(이론교육 이수자) 중 상위 5명과 티칭회원 1명이 준회원 자격을 부여받았다.

[KLPGA 2015 영광CC · 불빅 시니어 투어 파이널 with SBS 11차전] 한소영, 연장 접전 끝 시니어투어 첫 우승!

전라남도 영광에 위치한 영광컨트리클럽(파72/5,754야드) 오션, 밸리 코스에서 열린 'KLPGA 2015 영광CC · 불빅 시니어투어 파이널 with SBS 11차전(총상금 6천만 원, 우승상금 1천2백만 원)'에서 한소영(42,MFS)이 연장 접전 끝 시니어투어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선두에 5타 뒤진 공동 15위로 최종라운드를 출발한 한소영은 버디만 6개를 낚는 무결점 플레이로 최종합계 4언더파 140타(74-66)를 기록, 민인숙(42), 최세영(48)과 함께 연장전에 돌입했다. 연장 첫 홀에서 핀 좌측 4



미터 거리의 만만치 않은 버디 퍼트를 성공시킨 한소영은 파에 그친 민인숙, 최세영을 제치고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한소영은 "투어 공백 기간이 길었는데 이렇게 15년 만에 우승하게 돼 기분이 남다르다. 욕심 없이 첫 날에 잃었던 타수를 만회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경기했다. 가족들의 도움으로 우승할 수 있었다. 후원해주신 MFS 전채홍 대표이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1995년 KLPGA 정회원으로 입회한 한소영은 1999년 '제1회 파라다이스 여자오픈'에서 정규투어 첫 승을 신고했고 이듬해 '2000 스포츠서울 LG텔레콤 비투비 클래식'에서 통산 2승을 거뒀다. 2004년까지 정규투어 무대에서 활동한 한소영은 10년 간의 공백을 깨고 올시즌 시니어투어에 데뷔했다. 이번 대회에서의 우승과 'KLPGA 2015 CENTURY21CC · Volvik 시니어투어 4차전', 'KLPGA 2015 Volvik · CENTURY21CC 시니어투어 8차전'에서의 두 차례 준우승을 포함, 5차례 토펜에 진입하며 상금순위 3위를 기록 중이다. 한소영은 "과거 함께 투어 생활을 했던 선배들과 다시 경기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 예전보다 시니어투어 환경이 많이 좋아진 만큼 선수들도 더 좋은 성적을 통해 시니어투어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남아있는 두 대회를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존에 10개 대회로 치러지던 시니어투어는 올시즌 3개 대회가 늘어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다. 총상금 또한 11차전 6천만 원, 12차전 7천만 원, 13차전 8천만 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한편, 'KLPGA 2015 Volvik · CENTURY21CC 시니어투어 9차전' 우승자 홍화선(44)은 최종합계 3언더파 141타(70-71)로 김현령(42), 김복자(42), 이오순(53,불빅), 차지원(42)과 함께 공동 4위 그룹을 형성했으며 상금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서예선(44)은 최종합계 1오버파 145타(75-70)로 공동 16위에 머물렀다.

[KLPGA 2015 영광CC · 불빅 시니어 투어 파이널 with SBS 12차전] 김선미, 시니어투어 첫 우승!



전라남도 영광에 위치한 영광컨트리클럽(파72/5,754야드) 오션, 밸리 코스에서 열린 'KLPGA 2015 영광CC · 불빅 시니어투어 파이널 with SBS 12차전(총상금 7천만 원, 우승상금 1천4백만 원)'에서 김선미

(42,베트리안)가 생애 첫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선두와 1타차 단독 2위로 출발한 김선미는 최종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2개를 잡아내며 최종합계 8언더파 136타

(66-70)로 우승을 차지했다.

김선미는 "지금까지 우승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항상 놓쳐서 아쉽고 속상했다. 그 동안의 경험이 디딤돌이 됐다. 정말 기쁘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선미는 "초반에 버디 2개를 잡은 후 몇 번의 버디 기회가 있었지만, 욕심을 내면 보기를 범할 것 같아서 파만 잡자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고 보기 없이 경기를 마칠 수 있었다."며 우승 전략을 밝혔다. 2002년, 29세의 다소 늦은 나이로 프로에 입문한 김선미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정규투어에서 활동했으며 이번 시즌부터 시니어투어에 참가했다. 1차전부터 11차전까지 준우승 한 번을 포함해 총 5차례 토편에 들 정도로 꾸준한 성적을 낸 김선미는 시니어투어 2개 차전을 남기고 기다려온 생애 첫 우승 컵을 품에 안았다. 김선미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프로 데뷔를 했다. 30대 중반까지 정규투어에서 활동했지만 지금은 시니어투어에 출전할 수 있어 무척 기쁘다. 첫 승을 거뒀으니 남은 13차전에서도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1라운드를 단독 선두로 마친 이광순(46,볼빅)이 2타를 잃으며 최종합계 5언더파 139타로 정일미(43,호서대)와 김형임(51), 민인숙(42) 등과 함께 공동 2위를 기록했다. 한편, 기존 10개 대회로 치러지던 시니어투어는 올 시즌 3개 대회가 늘어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다. 총상금 또한 11차전 6천만 원, 12차전 7천만 원, 13차전 8천만 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더 열심히 해서 모범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김순희(48,에텔)와 이영미(52,미즈노)가 최종합계 5언더파 211타를 기록하며 선두와 한 타차 공동 2위를 차지했다. 한편, 'KLPGA 2015 CENTURY210CC · Volvik 시니어투어 1차전' 우승자 정일미(43,호서대)가 시즌 상금 약 3천6백만 원을 쌓으며 2위 서예선(44)을 약 270만 원차로 제치고 '2015 KLPGA 시니어투어 상금왕'의 영예를 차지했다. 정일미는 올시즌 시니어투어 13경기 중 우승 한 번을 포함해 12번 토편에 진입하는 고른 성적을 자랑했다. 시니어투어 상금왕에게는 2016 KLPGA 정규투어 2회 초청 출전권(상, 하반기 각 1회씩)이 부여된다. 정일미는 "항상 투어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나에게 시니어투어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상금왕을 차지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스폰서, 협회, 선후배 선수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시니어투어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더퀸즈 presented by 코와] 출전선수 9명 확정!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오는 12월 4일(금)부터 6일(일)까지 사흘간 일본 미요시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4개 투어 대항전 '더퀸즈 presented by 코와'의 KLPGA 출전선수 9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KLPGA는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종료 시점(10월 4일) 상금순위 상위 7명과 KLPGA 추천 선수 2명으로 출전선수를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종료된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종료 시점 KLPGA투어 상금순위 상위 7명인 전인지(21,하이트진로), 박성현(22,넵스), 조윤지(24,하이원리조트), 이정민(23,비씨카드), 고진영(20,넵스), 배선우(21,삼천리), 김민선(20,CJ오쇼핑)가 선발됐다. 추천선수로는 US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세영(22,미래에셋)과 JLPGA 상금순위 1위인 이보미(27,마스터즈GC)가 출전하여 최강 드림팀을 구성했다.

김세영은 "KLPGA의 국가 대항전에 처음 나가 본다. 예전 국가대표 시절도 생각 나서 더 뜻깊다. 한국이 골프 강국인데, 팀전이 많이 없어서 아쉬웠다. 이 대회가 더 활성화되어 세계적인 대회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출전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세영은 "출전선수 모두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선수들이다. 정말 강력한 드림팀이 될 것 같다. 다 같이 힘을 모아 좋은 성적을 내고, 재미있는 승부로 보는 분들에게도 즐거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전의 발전된 형태로 올해 처음 열리는 '더퀸즈 presented by 코와'는 KLPGA와 JLPGA(일본여자프로골프협회), LET(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 ALPG(호주여자프로골프협회) 등 4개 협회가 참가하며, 투어별 9명의 선수를 선발해 총 36명의 세계적인 선수들이 자존심을 내건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상금 총액은 1억 엔(한화 약 10억 원)이며 경기 방식은 1라운드 포볼 매치플레이, 2라운드 포섬 매치플레이, 최종라운드 싱글 매치플레이로 진행돼, 박진감 넘치는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LPGA 2015 영광CC · 볼빅 시니어 투어 파이널 with SBS 13차전] 김복자 생애 첫 우승, 정일미 상금왕 달성



전라남도 영광에 위치한 영광 컨트리클럽(파72/5,754야드) 오션, 벨리 코스에서 열린 'KLPGA 2015 영광CC · 볼빅 시니어투어 파이널 with SBS 13차전(총상금 8천만 원, 우승상금 1천6백만 원)'에서 김복자(42,1879프로골프단)가 최종합계 6언더파 210타(69-71-70)로 생애 첫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2위로 최종라운드를 맞은 김복자는 10번홀까지 버디 4개를 골라내며 침착한 플레이를 이어갔다. 15번홀(파,5090야드)과 17번홀(파4,3060야드)에서 보기를 범했으나 마지막 홀에서 파를 지켜내며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김복자는 "올해 처음 시니어투어에 진출했는데 연습한 만큼 성적이 나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다. 포기할까 생각도 했는데 이렇게 우승하게 되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며 감격스러워 했다. 이어 김복자는 "우승에 대한 욕심 없이 스코어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했는데 전반부터 중거리 퍼트감이 좋았다. 후반에는 체력 저하로 집중력이 떨어졌으나 마지막 홀을 잘 마무리해서 우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1997년 KLPGA 정회원으로 입회한 김복자는 그 해 정규투어에 데뷔한 후 2001년까지 활동했고 2008년에 다시 복귀하는 등 정규투어에서 총 6시즌동안 활동했다. 정규투어 최고 성적은 2000년 '재희 롯데백화점 클래식'에서 기록한 4위다. 김복자는 "시니어투어는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꿈을 키워 가는 곳이다. 앞으로

‘2015 KLPGA-Metlife 자선골프대회’ 열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는 10월 5일(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휘닉스 스프링스 컨트리클럽에서 메트라이프와 함께 ‘2015 KLPGA-MetLife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LPGA는 지난 1990년, 나눔 경영의 일환으로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했고 행사로 인한 수익금을 어린이재단, 양로원, 화상재단, 한국팔백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대어린이병원 등 다양한 곳에 기부하며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왔다. 올해에는 글로벌 리딩 생명보험사 메트라이프가 자선골프대회의 공동주최사로 나섰다. KLPGA 최고 권위의 메이저 대회인 ‘KLPGA 챔피언십’을 5년간 개최하며 한국 여자프로골프의 발전에 이바지한 메트라이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뜻 깊은 행사를 후원하게 됐다.

이번 자선골프대회에는 지난주 열린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에서 시즌 세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린 박성현(22,넵스)을 비롯, 삼강왕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이정민(23,비싸카드), 고진영(20,넵스), 조윤지(24,하이원리조트), 올시즌 신인으로 투어를 활기를 불어 넣고 있는 박지영(19,하이원리조트), 김예진(20,요진건설), 박결(19,NH투자증권), 지한솔(19,호반건설) 등 국내를 대표하는 38명의 정상급 KLPGA 선수들과 114명의 아마추어가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 처음으로 자선골프대회에 참가한 박성현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 많은 사람들이 모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있으면 기꺼이 동참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KLPGA 구자용 회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메트라이프 관계자 분들과 행사에 동참해주신 모든 내빈 및 선수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KLPGA는 더욱 겸손한 자세로 사회 곳곳에 소외된 이웃들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자선골프대회를 통해 조성된 자선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전달될 예정이다.

KLPGA와 T1, 네팔 대지진 구호 성금으로 2천만 원 기부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와 친환경 LPG 전문기업 T1이 대한적십자사에 네팔 대지진 구호 성금으로 2천만 원을 전달했다. 네팔은 지난 4월 발생한 강도 7.8도의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망자가 나왔고, 산사태로 인해 도로와 통신망이 붕괴되며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KLPGA는 KLPGA투어 스폰서인 T1과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네팔 지진 피해 복구 지원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선수 모금액과 KLPGA 자선기금에 ‘T1 캐리티오픈’의 프로암 판매 수익, 참가자 기부 및 대회 갤러리 기부금이 더해져 의미가 더욱 크다. KLPGA 강춘자 수석부회장은 “아직 네팔의 피해 지역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마련한 이번 기금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빠른 복구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KLPGA-삼천리 꿈나무대회 2015’, 뜨거운 열기 속 첫 대회 성료

지난 13일(화)부터 16일(금)까지 4일간 군산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삼천리 꿈나무대회 2015’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KLPGA와 삼천리가 공동 주최하여 처음 개최한 꿈나무대회의 저학년 부문 우승은 4오버파 148타를 기록한 이정현이, 고학년 부문은 2언더파 142타를 기록한 김민주가, 중등부는 5언더파 139타를 친 송가은이 각각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초·중학교 200여 명의 꿈나무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15일과 16일 본선 2라운드 경기를 통해 최종 우승자를 가렸다. 각 부문 우승자를 비롯한 상위권 선수들에게는 장학금 및 다양한 부상이 주어졌다. 중등부 우승을 차지한 송가은은 “본선 이틀 동안 컨디션이 좋아서 성적이 잘 나왔다.”며 “특히 이렇게 뜻깊은 대회를 개최해 준 KLPGA와 삼천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수)은 홍란(29,삼천리), 윤선정(21,삼천리), 하민송(19,롯데), 홍진주(32,대방건설) 등 KLPGA 프로선수들이 대회장을 찾아 초등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골프 실전레슨과 멘탈 교육을 진행하는 등 꿈나무들의 실력 향상과 함께 올바른 가치관 및 강인한 정신력 배양을 도모하는 전인 교육시간이 마련됐다. 16일(금) 오전에는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의 학부모와 대회 관계자들이 모여 골프 꿈나무 육성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는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국내 골프 저변의 확대 및 꿈나무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채워졌다.

KLPGA 강춘자 수석부회장은 “나흘간의 여정 동안 참가 선수들에게서 강한 열정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이번 꿈나무 대회를 통해 꿈나무들이 한국골프를 이끌어 나갈 기둥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삼천리 이찬의 사장은 “꿈나무, 프로선수, 학부모, 주최측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꿈나무 발굴 및 육성’이라는 대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며 “이 대회가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의 산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삼천리그룹은 도시가스사업을 주축으로 발전, 집단 에너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기업으로, 친환경 생활문화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삼천리는 작년 말 프로골퍼 홍란(29)을 비롯하여 배선우(21), 윤선정, 안소현(20) 등을 영입해 스포츠단을 공식 출범했고, 지난 4월에는 KLPGA 정규 투어인 ‘삼천리 Together Open’을 처음으로 개최하는 등 국내 스포츠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EST PHOTO

베스트 포토



KLPGA 공식 사진기자인 박준석 사진기자가 직접 선정한 2015 KLPGA투어 베스트 포토입니다.

사진 _ KLPGA 공식사진기자 박준석

KDB 대우증권 CLASSIC 2015

동료들로부터 우승축하 목세례를 받는 박성현
KDB 대우증권 CLASSIC 2015
박성현



KDB 대우증권 CLASSIC 공식 포토북
KDB 대우증권 CLASSIC 2015



디펜딩 챔피언 전인지가 박성현에게 우승자켓을 입혀주고 있다
KDB 대우증권 CLASSIC 2015
박성현

챔피언조에 목려든 갤러리
KDB 대우증권 CLASSIC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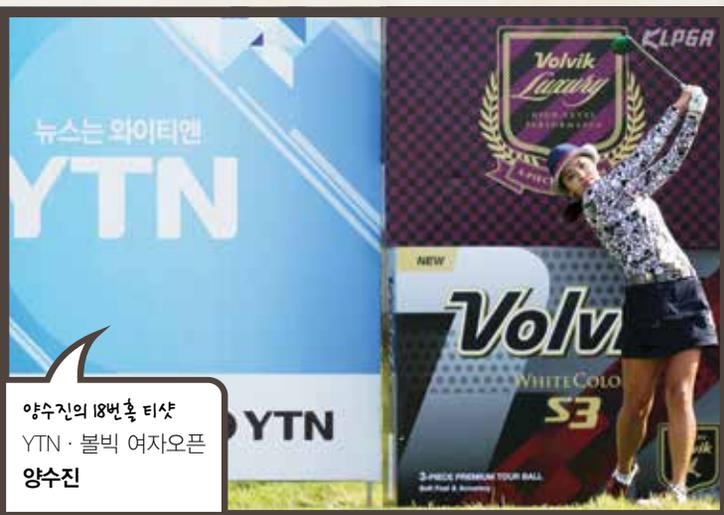
장하나가 2번홀 버디퍼트를
놓친 후 아쉬워하고 있다
YTN · 볼빅 여자오픈
장하나



우승 확정 후 기뻐하는 장하나
YTN · 볼빅 여자오픈
장하나



양수진의 18번홀 티샷
YTN · 볼빅 여자오픈
양수진





18번홀에 모여든 갤러리
YTN · 볼빅 여자오픈

1번홀에서 티샷을 날리는 임지나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
임지나

KPGA



16번홀에서 선수들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박세리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
박세리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



안시현의 7번홀 티샷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
안시현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 공식 포토콜에서 박세리와 세리키즈, 그리고 제2의 세리키즈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

AROUND
C.C

어라운드 C.C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

사계절 체류형 명품 해양 복합리조트

HAEUNDAE BEACH GOLF & RESORT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인 부산 해운대. 그곳에서도 이제 고품격의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골프장이 생겨났다.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드넓은 그린 위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가 부산, 경남권을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골프리조트로 발돋움하기 위해 힘찬 첫 발을 내디뎠다.

글 _ 김민규 사진 _ 강권신 자료협조 _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



KLPGA투어와 처음 만나는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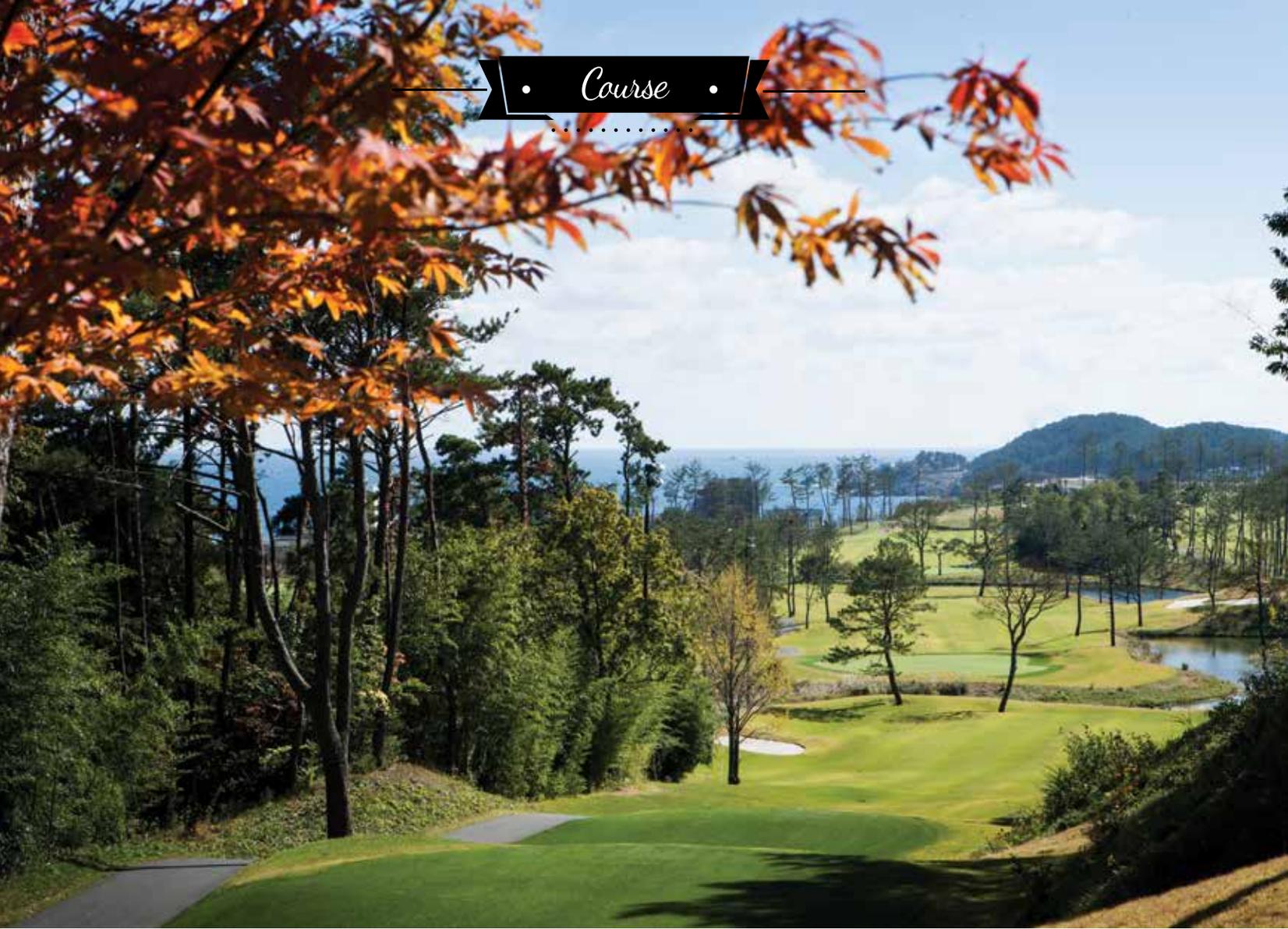
지난해 11월 첫 선을 보인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는 개장한지 만 일 년 만에 KLPGA투어를 유치하며 대중 앞에 그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ADT CAPS Championship 2015' 대회가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리게 된다. 개장 이래 처음으로 KLPGA와 인연을 맺는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는 '그동안 메이저 대회를 왜 개최하지 않았나' 의문이 갈 정도로 이미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규모와 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 곳이다. 전장 7,250yds, 평균 페어웨이 폭 60m, 90만㎡의 광활한 코스는 자연 그대로 숲과 페어웨이를 조화시킨 코스로 어느 세계적인 골프 코스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특히 전체 홀 중 12개 홀이 바다를 감상하며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아름다운 면모를 뽐내고 있다.

도심과의 접근성, 자연과의 조화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는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어 보다 편리하고 한층 가깝게 만날 수 있다. 부산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은 해운대와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2시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울산, 김해공항과도 30여 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누구든지 쉽게 휴식과 비즈니스를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도심과 가까이 위치하면서도 천혜의 자연을 그대로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 또한 큰 장점이다. 골프코스를 처음 설계하면서부터 기존의 원형수림대를 훼손 없이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코스를 만들었기에 페어웨이와 자연수림의 조화가 그 어느 곳보다 뛰어나다. 코스를 둘러보면 수십 년 이상의 수령을 자랑하는 소나무가 많이 보이는데, 이 모든 나무들은 조경을 위해 옮겨 심은 나무가 아니라 골프장을 만들기 이전부터 그 자리를 지켜온 토박이 나무들이다. 이 때문인지 개장한 지 일 년 밖에 되지 않은 골프장 임에도 미완성 된 듯한 어색함이 전혀 없이 오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코스 내 명물로 수령 백여 년 이상을 자랑하는 '정일 품송'에서 바다를 향해 내려다보는 코스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 신비한 아름다움을 전해준다.





코스개요

천연의 자연수림을 그대로 살린 골프 코스는 18홀 중 12홀에서 바다의 풍경을 조망하며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천연 소나무와 대나무 숲이 조화를 이룬 인공적인 마운틴 코스와 푸른 바다와 초록색 그린이 어우러져 아국적인 풍경을 만들어 내는 오션 코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듯 조성되어 있어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총 면적 _ 909,938㎡(약 275,255 평)

홀수 _ 18홀(마운틴, 오션) 파72 / 6,604m / 7,222yds

코스길이 _ Mountain Course 9홀 / 파36 / 3,579yd(3,273m)

Ocean Course 9홀 / 파36 / 3,643yd(3,331m)

바다의 내음과 소나무 숲의 맑은 공기를 함께 누리는 힐링 코스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의 코스는 전체적으로 드넓은 해운대 앞바다의 풍경과 페어웨이가 펼쳐지는 초원, 자연 그대로의 감동을 전해주는 소나무 숲이 함께하는 자연주의 코스를 지향하고 있다. 전체 코스는 마운틴과 오션의 2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운틴 코스는 남성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코스로 기존의 숲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 해송과 대나무 숲이 어우러진 코스다. 시원한 드라이브 샷을 구사할 수 있는 홀부터 정교한 아이언 샷이 요구되는 홀까지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홀로 구성되어 자연의 멋과 플레이의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푸르른 해운대 앞바다의 풍경과 초록의 그린이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내는 오션 코스는 아기자기한 레이아웃에 시원한 풍경이 더해져 여성적인 매력을 담고 있다. 바다를 바라보며 샷을 날리는 시원함과 함께 코스 내 크고 작은 호수와 억새 숲이 어우러진 모습은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낸다.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는 자연친화적인 생태골프장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코스 내 모든 물길이 연결되고 순환되어 자체 정화가 가능한 자연정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골프장에 볼 수 있는 생태이동로를 만들어 동물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만들어 놓아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진정한 의미의 생태골프장이라 할 수 있다.

MOUNTAIN COURSE

기존 수림대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해송과 대나무 숲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고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전략적 홀로 구성되어 자연을 벗삼아 플레이 할 수 있는 코스다.

OCEAN COURSE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 푸르른 해운대 바다 풍경과 드넓고 아기자기한 초록빛 코스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환상적인 코스다.



동부산단지 내 핵심으로 자리 잡을 종합레포츠타운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는 단순히 골프만을 위한 시설에 만족하지 않을 계획이다. 해운대 인근 기장군 일대에 미래형 도시로 조성되는 동부산단지 내 '종합레포츠타운'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종합레포츠타운'은 총 1조 원 규모의 예산으로 4블록의 테마 공간 건설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첫 걸음으로 지난해 11월 1블록인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를 18홀 코스로 개장했다. 이어서 75세대 규모의 골프빌리지가 올해 안에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며, 2블록으로 카지노와 1,000실의 호텔 등을 준비하여 국내 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를 위한 전용 시설과 시스템을 갖춘 예정이다. 또한 3블록은 국내 최초의 바이오 메디컬 관광센터로 기획 중이며, 4블록은 온천 스파, 파3홀과 구질을 파악할 만큼의 비거리를 갖춘 골프연습장이 포함된 '종합레포츠타운' 건립도 추진 중이다. 특히 이 지역은 중국인에게 영주권이 주어지는 유일한 곳으로, 중국관광객 유치에도 큰 힘을 더하게 될 전망이다.

MINI INTERVIEW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
구천서 회장



편리한 교통과 사계절 내내 온화한 기후를 유지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연중 언제나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는 서울만큼 편리한 시설과 제주도만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어 골프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골프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KLPGA투어 'ADT CAPS Championship 2015' 개최를 통해 보다 성숙한 모습의 골프리조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에 앞장서고 있는 KLPGA 선수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겠습니다.



• Travel •



바다의 풍경과 어우러진 고사찰의 단아함, 해동용궁사

부산 기장에 위치한 해동용궁사는 부산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꼭 방문하는 사찰로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이다. 1376년 나옹화상이 창건했으며 원래의 이름은 보문사였다. 하지만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통도사 문창화상이 중창하였다고 한다. 1976년 부임했던 정암스님이 관음보살이 용을 타고 승천하는 꿈을 꾸 뒤 해동용궁사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우리나라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사찰 중의 하나로 유명하다. 또 12지신 석상, 교통안전기원탑, 포대화상, 해수관음대불, 지장보살 등 볼거리가 많으며 전망대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더없이 아름다운 곳이다. 또한 사찰과 이어진 해안 산책로는 시원한 비릿바람과 함께 산책하면서 사찰을 둘러보기에도 좋다.

해동용궁사 _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용궁길 86 (051-722-7744)

COVER
STORY

커버스토리
하민송

나에게 골프란
[웃음을 주는 비타민]
이다

HA Min Song

정규투어 데뷔 후 생애 첫 우승, 'BOGNER MBN 여자오픈'
우승자 하민송 인터뷰



2013시즌 점프투어 상금왕을 거쳐 올해로 정규투어 2년차인 하민송. 지금까지 그에게 우승의 기회는 늘 아쉽기만 했다. 그 문턱 앞에서 역전패를 당하기도 하고 연장전에서 진 적도 많았다. 그런 경험들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생애 첫 우승을 만들어냈다. 생글생글 밝은 미소의 근원인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그의 투어생활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_ 김소현 사진 _ 안지섭 만만디 스튜디오 촬영협조 _ 남촌 컨트리클럽



KLPGA 동지여러분

민승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2015시즌

2015시즌이 시작되기 전, 하민승의 단 하나의 목표는 바로 '우승'이었다. 지난 시즌 그는 쇼트게임이 롱게임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쇼트게임 연습량을 늘려 보완하려고 노력했다. "올 시즌 목표를 이뤄내서 매우 기뻐요, 이제 또 새로운 목표를 세워나가야죠." 그는 시즌 남은 대회에서 다시 한 번 우승을 하고 싶다고 한다.

반면 이번 시즌에 아쉬웠던 점도 많다. "모든 대회에서 아쉬운 실수가 없었다면 매년 우승했을 것 같아요.(웃음)" 그 중에서도 6월에 있었던 '비씨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15'를 가장 아쉬웠던 대회로 꼽았다. 선두 장하나에 2타차 뒤져있었던 그는 17, 18번홀에서 버디를 해야만 연장을 가는 상황이었다. "문득 우승의 기회가 눈앞에 오니까 욕심이 났어요, 무조건 두 홀 모두 버디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욕심이 앞서다 결국 17번홀에서 보기가 났죠. 물론 2위도 좋은 성적이지만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역시 그에게 좋은 약이 되었다. 욕심을 가지면 마음이 조금해져 실수를 한다는 것. 깨달음은 편안한 마음가짐을 갖게 했고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평생 잊지 못할 정규투어 데뷔 첫 승

"정말 기뻐서 머리가 하얘지는 듯 했어요. 감사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아서 우승소감 때 말을 못했죠." 부모님, 지유진 코치님, 매니저님, 트레이너 선생님 등...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고 자신을 위해 고생해준 분들이기에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우승소감을 위해 작은 종이에다 그 이름들을 적어놓았지만 막상 열떨떨하고 실감이 나지 않아 못내 전하지 못한 마음을 털어 놓았다.

단독 선두로 최종라운드를 시작한 그는 경기 내내 흔들림이 없었고, 경기 막판으로 가면서 거침없는 샷을 구사하며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보였다. 그러나 그가 느낀 경기의 흐름은 달랐다. "솔직히 함께 조를 이룬 전인지 언니가 많이 신경 쓰였어요. 덩달아 우승하고 싶다는 생각에 더 긴장됐었어요." 하민승은 우승의 기쁨보다 7번홀에서의 실수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OB가 나는 순간 우승과 멀어졌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인지 언니와 재밌게 경기하고 많이 배워가자는 생각이 컸어요." 그는 '우승보다 좋은 경험이 됐다'고 생각을 바꿨고, 오히려 그것이 우승을 이끌었다고 말한다. "그날 실수가 없었다면 우승을 못했을지도 몰라요."



“

‘우승보다 좋은
경험이 됐다’고 생각을 바꿨고,
오히려 그것이 우승을
이끌었던 것 같아요.

”

차근차근 밝아 올라가며 배운 즐거운 투어생활

어렸을 때 태권도를 했던 그는 우연히 박세리 프로의 경기를 보고 골프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골프를 시켜달라고 부모님을 졸라 초등학교 4학년 때 골프채를 잡았다. 그는 고등학생 때 국가상비군을 거쳐 프로로 전향했고, 드림투어, 점프투어를 차례대로 밝아 올라가면서 정규투어에 입성했다. “처음 정규투어에 나섰을 때는 2, 3부 투어와는 많은 부분이 달랐어요. 특히 코스세팅 부분이 몸으로 크게 와 닿더라고요. 정규투어의 코스는 방어적으로 플레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러 부분이 다르긴 하지만 드림·점프투어의 경험들이 제가 현재 정규투어에 임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어린 나이지만 꽤 오랜 시간 골프에만 매진하다 보니 친한 친구들이 모두 골퍼다. 그렇기에 그의 주변에는 항상 친구들이 있어서 힘이 된다고 한다. 특히 같은 소속팀 선배들과의 돈독한 우정이 그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줬다. “롯데 소속팀 언니들이 저를 살뜰히 챙겨주셔서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소속 선수들 모두 친하게 지내면서 즐겁게 투어생활에 임하고 있지요.” 언니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는 소속팀의 막내다. 항상 웃으면서 밝고 긍정적인 그의 모습은 어느 누구도 미워할 수 없을 것이다.

밝은 모습과 좋은 생각으로 목표에 가까이 다가간다

“웃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시종일관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그는 웃으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한다. 실수가 있더라도 크게 연연치 않고 웃어 넘긴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강점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필드 위에서 자신의 골프에 대해서는 냉정한 그다. “아직 70~80미터 안쪽의 쇼트게임이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연습이 더 필요해요. 완벽해질 때까지 연습을 반복하고 보완해 나가야죠.”

단기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해 가면서 점점 목표를 높여나간다는 그는 2016시즌에는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 “다음 시즌에는 우승도 좋지만 토탈 피니쉬율을 높여서 사람들에게 ‘꾸준히 잘 친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나아가 팬들에게는 밝은 모습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단다. “아직까지는 해외진출 계획이 없어요. 국내투어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실력과 경험을 쌓고 싶어요.”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하민송. 그의 예쁜 미소처럼 밝은 모습으로 꾸준히 골프를 즐기는 행복한 골퍼로 기억되길 바란다.



웃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하민송 (Ha Min Song) / 河民松

생년월일 1993년 2월 15일

입회연도 2013년 5월

소속 롯데

정규투어 통산우승 1승

BOGNER MBN 여자오픈 우승

YTN · 불박 여자오픈 2위

비씨카드 · 한경 레이디스컵 2015 2위

2013시즌 정규투어 상금왕

인생의 특별한 선물인 골프, 소중한 친구가 되다

드림투어 14차전 우승자 안나린 인터뷰

'KLPGA 2015 카이도 골프·삼대인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4차전'에서 프로 데뷔 첫 우승컵을 들어 올린 안나린. 자신에게 골프는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라고 말하는 그는 정말로 골프를 좋아한다. 그만큼 골프를 즐기면서 꿈에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는 안나린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_ 김소현 사진 _ 강권신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

안나린

안나린 pro

안나린 (An Na Rin) / 안나린

생년월일 1996년 1월 5일

입회연도 2014년 9월

드림투어 통산우승 1승

KLPGA 2015 카이도 골프·삼대인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4차전 우승

KLPGA 2015 카이도 골프·삼대인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15차전 8위

KLPGA 2015 이동수스�포츠·군산CC컵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4차전 3위

KLPGA 2014 신안그룹배 점프투어 12차전 4위

편안한 마음가짐, 좋은 생각이 선물한 생애 첫 우승

'코치님, 이번에는 정말 우승하고 싶어요!' 드림투어 14차전 최종라운드를 나서기 전, 안나린이 그의 코치 마이크 전 프로한테 유선으로 전했던 말이다. "너무나 간절할 마음에 어리광처럼 했던 말인데 정말 우승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꿈에 그리던 우승이라 하늘을 나는 듯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선두에 1타 뒤진 공동 4위로 최종라운드를 출발한 그는 무서운 기세로 버디 7개를 몰아치며 우승컵을 차지했다.

"운이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퍼트도 버디로 돌아와주고, 칩인버디도 성공하고... 우승을 실감하지 못했어요." 기다렸던 만큼 많은 생각들이 뇌리에 스쳐지나갈 줄 알았지만 막상 머리가 하얘졌다. 사실 그는 올시즌 첫 디비전인 'KLPGA 2015 이동수스포츠·군산CC컵 드림투어 with 현대증권' 5개의 대회 중 한 번을 제외하곤 모두 컷 탈락을 했다. 평소에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한 모습이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했던 그는 이후 자신감이 떨어졌고, 멘탈 부분도 많이 약해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좋은 생각을 하려 부단히 노력했다. "처음으로 느낀 제 모습은 대회에 임할 때마다 긴장을 만들어 내는 것 같았죠. 이번 대회 때는 마인드컨트롤을 위해 심호흡을 하면서 하늘을 많이 올려다봤어요." 편안한 마음가짐은 그에게 바로 우승이란 선물을 가져다줬다.

태권도를 좋아한 소녀, 멋진 골퍼를 꿈꾸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권유로 처음 접한 골프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동적인 운동을 좋아하는 그는 아버지의 태권도 책을 보면서 권법 등을 따라하는 걸 좋아했다. 그렇게 그는 아버지를 따라 태권도 도장을 다니며 운동을 시작했다. "우연히 가족여행을 갔다가 골프에 매료됐어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인데다 평생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란 생각이 들었죠." 태권도로 인해 다져진 다부진 체력과 멘탈은 본격적으로 골프를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현재 그는 건국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진학하면서 투어생활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최근 학교에서 존경하는 선수에 대해 리포트를 제출하는 과제가 있었어요. 저는 롤모델인 박세리 프로님에 대한 자료를 정리했는데 연장 무패에 감명 받았어요.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멋진 선수로 기억되고 싶어요."

바람대로 조금씩 이뤄가고 있는 그의 꿈

2015시즌, 조금씩 이뤄나간 목표가 어느 덧 한 개만을 남겨두고 있다. "올시즌 목표였던 우승을 달성해서 뿌듯해요. 시즌이 끝나기 전, 정규투어 시드권을 확보하는 게 제 남은 바람이에요." 그는 매니지먼트 성호준 대표의 SNS 문구를 계속해서 마음에 되새기고 있다. '부러운 대상의 선수가 되지 말고 존경 받는 선수가 되길'. 1부 투어 진출을 넘어서 해외무대로, 나아가 그의 골프 인생에 마지막 목표라고 말한다.

"드림투어는 정규투어에 비해 소외된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2부 투어에도 훌륭한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나린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웃음)" 그의 옆에서 항상 의지가 되어주는 부모님과 여동생, 그의 골프를 위해 힘써주는 교수님들과 프로님, 대표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 멋진 플레이를 약속하는 안나린이었다. 더욱 상승장구할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



KLPGA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는 자리,

The '명예의 전당'

Hall *of* Fame

'명예의 전당'은 사전적 의미로 스포츠, 예술 등 특정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또 큰 존경을 받는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기념관, 단체, 모임을 뜻한다.
프로골퍼라면 골프라는 한 분야에서 최고임을 인정받는 자리가기에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목표가 아닐 수 없다.

글 김소현



KLPGA를 빛낸 영광스런 사람들의 자리 '명예의 전당'



누구나 꿈꾸는 최고 명예의 자리, 바로 명예의 전당이다. 명예의 전당은 KLPGA의 명예를 드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에게 헌액되는 자리다. KLPGA는 수많은 선수들이 자신의 개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케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대내외적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한 차원에서 명예의 전당 기준을 설정했다.

우선 명예의 전당에 입회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투어 경력이어야 하며, 국내외 투어를 포함해 우승 또는 수상 등의 포인트를 모두 합쳐 10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우승대회와 수상내역에 따라 주어지는 포인트 점수는 각각 다르며, 적어도 메이저 대회, 최저타수상, 대상 중 1부문 이상 수상해야 자격조건이 갖춰진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면 해당자의 핸드 프린트를 동판으로 제작해 협회에 영원히 보존되며, 금으로 된 KLPGA 조형물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또한 KLPGA를 대표하는 명예대사로 임명돼 국내대회에 폴시드권을 부여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KLPGA 명예의 전당에는 최초로 구옥희 프로가, 두 번째로 박세리 프로가 입회했다. 가장 먼저 명예의 전당에 오른 구옥희 프로는 20회의 국내 우승기록과 24회의 해외대회 우승기록을 보유했으며 총 116포인트를 획득해 2005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박세리 프로 역시 국내대회 개인통산 8승과 해외대회 25승의 기록을 세우며 총 108포인트로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박세리 프로는 KLPGA 명예의 전당과 더불어 USLPGA와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도 동시에 입회했다.

KLPGA 선수들에게 부여되는 포인트 기준 (국내외 대회 포함)

4
포인트

메이저 대회 우승 및 대상
(올해의 선수상) 수상자

2
포인트

일반 정규대회, 시즌 최저타수상,
KLPGA 공로상, 신인상 수상자

1
포인트

KLPGA 주관대회 1회 참가
(해외활동 선수로서 USLPGA,
JLPGA 폴시드권자에 한함)



전 세계에서 최고의 프로골퍼로 인정받는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



해외에서는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World Golf Hall of Fame)'이 있다. 이는 1950년 '여자골프 명예의 전당'을 전신으로 1967년 'USLPGA 명예의 전당'으로, 1998년부터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으로 통합됐다. 그렇기에 USLPGA 명예의 전당 입회자는 동시에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자동적으로 가입됐으나, 2014년 40세 이상 또는 은퇴한 지 5년이 넘은 선수 가운데 일반 투어 대회 15승 이상 또는 메이저 대회 2승 이상을 거둔 선수에게 후보자격을 주는 등 가입 요건을 변경했다. 또한 전 세계 26개 골프기구 대표가 참석하는 이사회 추천을 받아야 하며, 입회 조건을 갖춘 선수는 회원 투표에서 65%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 회원으로는 골프계의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리는 아널드 파머와 벤 호건을 비롯해 애니카 소렌스탐, 캐리 웹 등이 가입되어 있다.

우리나라 선수로는 박세리 프로가 2007년 USLPGA 명예의 전당에 현역되면서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동시 가입됐다. 특히 박세리는 아시아 최초로 명예의 전당 입회 자격을 얻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10년 투어 생활'의 입회 조건이 맞지 않아 3년 뒤인 2007년에 공식적으로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더불어 USLPGA에서 활약하며 세계랭킹 1위,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박인비가 USLPGA 명예의 전당 자격 요건 충족을 눈앞에 두고 있어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 27포인트를 채워야 명예의 전당 자격이 주어지는데 박인비는 현재까지 메이저 대회 7승과 일반대회 9승을 비롯해 각종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해 총 25포인트를 확보했다. 올해로 투어 9년차인 박인비가 2포인트를 더 획득한다면 내년에 USLPGA 명예의 전당 자격을 모두 충족하게 된다.

자신의 최고 기량을 발휘할수록 가까워지는 명예의 전당



KLPGA 명예의 전당도 올해 신지애가 입회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JLPGA에서 투어생활 중인 신지애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회 연속 대상 수상과 해외대회를 포함해 메이저 대회 8승, 정규대회 32승, 신인상, 최저타수상, 공로상 등으로 총 129포인트를 얻었다. 이미 신지애는 100포인트 이상을 획득해 명예의 전당 입회가 가능했으나 투어생활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했다. 2005년에 KLPGA에 입회한 신지애는 올해로 그 조건이 충족돼 명예의 전당에 현역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명예의 전당 후보자로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KLPGA투어를 휩쓸었던 국내투어 15승에 빛나는 고우순, 국내투어 11승을 거두고 USLPGA투어에서 활약했던 김미현, 국내투어 8승을 달성했고 현재 JLPGA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강수연, 2006년 2007년 해외부분 대상을 수상한 전미정, 국내투어 7승과 JLPGA투어 19승을 거둔 안선주, JLPGA에서 19승을 달성하고 현재도 활약 중인 이지희 등이 있다.

명예의 전당은 KLPGA를 빛내는 가장 명예로운 자리, 가장 존경받는 자리로서 투어생활을 하고 있는 프로선수들의 목표이자 꿈이다. 또한 골프에서 최고임이 인정되는 징표이기에 개인적으로 영광스런 업적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많은 훌륭한 선수들이 기량을 한껏 발휘해 명예의 전당에 입회하거나 입회 후보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한국여자프로골퍼의 자존심으로 수많은 후배들과 팬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 숨쉴 것이다.



명예의 전당

1호

Ku Ok-Hee

具玉姬

(故) 구옥희 프로



생년월일 1956년 8월 1일

회원번호 00003

입회년도 1978년

생애총상금액 253,193,698

2005년 KLPGA 명예의 전당 최초 입회

우승 및 수상내역		포인트
10년 이상 투어경력	KLPGA 1979년 입회 JLPGA 1983년 입회	
최저타수상 (2포인트)	JLPGA 1회	2포인트
정규대회(2포인트)	KLPGA 17승	34포인트
	USLPGA 1승	2포인트
	JLPGA 20승	40포인트
메이저대회 (4포인트)	KLPGA 3승	12포인트
	JLPGA 3승	12포인트
KLPGA공로상 (2포인트)	7회	14포인트
합 계		총 116포인트

명예의 전당

2호

Pak Se-Ri

朴세리

박세리 프로



생년월일 1977년 9월 28일

회원번호 00121

입회년도 1996년

생애총상금 664,607,965

2007년 USLPGA, 세계골프, KLPGA 명예의 전당 동시 입회

우승 및 수상내역		포인트
10년 이상 투어경력	KLPGA 1996년 입회 USLPGA 1997년 입회	
최저타수상 (2포인트)	USLPGA 1회	2포인트
대상 (4포인트)	3회	12포인트
정규대회 (2포인트)	KLPGA 8승	16포인트
	USLPGA 20승	40포인트
메이저대회 (4포인트)	KLPGA 5승	20포인트
신인상 (2포인트)	KLPGA 1회	2포인트
	USLPGA 1회	2포인트
KLPGA공로상 (2포인트)	2회	4포인트
KLPGA주관대회 (1포인트)	10회	10포인트
합 계		총 108포인트

Hero in History



강수연

<히어로인 히스토리>는 'KLPGA를 빛낸 30인'을 회원번호 순으로 만나고 있다. 여덟 번째의 주인공은 회원번호 133번 강수연 프로다.

2001시즌 KLPGA투어 대상과 상금왕, 최저타수상을 비롯해 KLPGA투어 한 라운드 최다 버디(10개), 동일 대회 최다 연속 우승(하이트컵 3회), 최장 플레이오프(11개홀) 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강수연 프로. 그는 국내대회 8승을 달성하며 2000년도 초반의 KLPGA를 휩쓸었다. 현재까지 현역으로 투어생활을 하면서 멋진 활약을 하고 있는 그의 골프인생을 들어본다.

글 _ 김소현 사진 _ 강권신 촬영협조 _ 리베라 컨트리클럽 골프트레이닝센터

성공을 향한 길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법

KANG SOO-YUN

어려운 상황에서 얻은 값진 우승, 자신감을 얻다

국내대회에서 통산 8승, USLPGA투어와 JLPGA투어에서도 1승씩 거두며 3개국 투어에서 우승컵을 안았던 강수연 프로. 많은 우승 대회 중에서도 그는 '아스트라컵 스포츠투데이 제15회 한국여자프로 골프 선수권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단다. "애니카 소렌스탐, 로라 데이비스 등 외국선수들이 많이 참여했던 대회였기에 부담이 됐었던 대회였어요. 물론 자신은 있었지만 해외에서 우승경험이 많은 선수들이었기에 저도 모르게 긴장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특히 우승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어서 더욱 그러했다. 최종라운드 마지막 홀에서 드라이브 샷 미스가 났던 것. "어프로치 샷으로 실수를 만회하는 듯했어요. 하지만 볼은 핀에서 'ㄱ'자 모양으로 10미터 가량 떨어져 있었죠. 어려운 퍼트를 성공하고서 온몸에 전율을 느꼈죠.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멋진 퍼트였어요."

더불어 '2002 스키야벨라-김영주패션 인비테이셔널' 또한 생생히 기억나는 대회 중 하나다. 4타차 선두로 최종라운드를 시작했던 그는 후반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순위가 뒤집히는 상황이 됐다. "마지막 홀, 버디를 성공시켜야지만 연장전으로 갈 수 있었어요. 상대는 약 1미터에서, 저는 약 4.5미터에서 퍼트를 해야 했죠." 긴장되는 순간에 그는 침착하게 퍼트를 성공시켰고, 상대선수는 실 패하여서 우승컵을 안았다. 그렇게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감을 얻었고 해외 무대 진출의 기회도 생겼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미국에서의 슬럼프

국내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강수연 프로는 해외에서도 '역시 잘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컸다. 하지만 USLPGA는 그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성적 부진으로 이듬해 시드권을 잃어 몇 년 동안 켈리파잉 스쿨을 드나들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달갑지 않은 손님, 슬럼프가 왔다. "계속해서 잘 치고 싶은 욕심에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골프를 그만두고 싶은 순간까지 왔죠." 생각보다 그 기간은 꽤 길었다. 얽힌 데 얽힌 격으로 목 디스크까지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스윙이 망가지면서 심신이 모두 지쳐버렸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자신을 버리기로. "예전에 몇 번 우승했고, 성적이 좋았었고. 이런 생각들은 부질없어요. 단순히 '과거'일 뿐이죠. 과거 자신의 명성들과 실력에 매여있지 말아야 해요. 그렇게 전 과거의 강수연을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인드를 한 번에 바꾸기란 쉽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그러면서 조금씩 슬럼프를 극복해 나갔다. 결국 미국생활 5년 만에 'USLPGA 2005 세이프웨이클래식'에서 우승컵을 품에 안으며 설움을 털어냈다. 더 이상 미국에 미련이 없었던 그는 당시 코치의 권유와 자신의 결정으로 과감하게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꾸준히 골프를 즐길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 만들기

KANG SOO-YUN

지치지 않고 통련할 수 있는 이유, '즐기는 골프'

강수연 프로는 2013년 JLPGA투어에서 첫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지금까지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강수연의 시대는 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최근 우승으로 팬들에게 '아직 저 살아있어요'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후배들에게는 30살이 넘어서도 투어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본보기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아요." 현재까지도 후배들과 함께 현역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는 더 부지런하게,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 "마흔이 되면서 드라이버 거리가 잘 안나온다는 게 느껴졌어요.(웃음) 그래서 20대 때보다 체력훈련을 더 강화해서 연습했고, 지금은 예전의 비거리를 되찾았어요."

그가 통련할 수 있는 노하우는 바로 '즐기는 골프'였다. "어렸을 때는 무조건 우승만 바라보고 대회에 임했었어요. 선배들이 '골프를 즐기면서 해라'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꼭 우승은 아니더라도 재미있게 골프를 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그는 골프가 자신에게 주는 행복을 찾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골프의 재미를 알게 된다고 말을 덧붙였다.

세계 최고로 우뚝 선 한국여자골프의 파워

올시즌 'BMW Ladies Championship 2015'와 '제16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 참가한 강수연 프로는 뛰어난 기량의 후배들의 모습에 많이 놀랐다고 한다. "한국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현재 해외무대에서 한국 선수들이 휩쓸고 선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덧붙여 그는 선수들의 에티켓을 강조했다. "대회 환경이 좋아진 만큼 누가 먼저라고할 것 없이 선수 자신이 골프장을 아껴 사용하고 서로 간의 에티켓을 지켜준다면, KLPGA 선수들은 아마 세계 최강의 골퍼들이 아닐까요." 때로는 후배들에게 무서운 선배일지 모르지만, 어떤 한 부분이라도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선배가 되길 바라며 더욱 노력하고 있다는 그다.

강수연 프로는 앞으로도 힘이 닿는 한 투어생활을 계속 하고 싶다고 한다. 또한 3대 투어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양성에도 힘쓰고 싶어 올해 7월 아카데미를 오픈하기도 했다. "제가 세계 3대 투어에서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KLPGA가 큰 디딤돌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배들이 해외무대에서 활약하며 발판을 닦아왔기에 한국여자골프가 지금처럼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세계 최강이 될 KLPGA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강수연 프로. 그의 이름 앞에 붙여진 진귀한 기록들의 수식어는 절대 하루 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었다. '골프를 즐기자'는 그의 마음가짐대로 오랫동안 쪽, 행복한 투어생활을 응원한다.



어렸을 때는 무조건 우승만
바라보고 대회에 임했었어요.
선배들이 '골프를 즐기면서 해라'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꼭 우승은 아니더라도 재미있게
골프를 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예전에 몇 번 우승했고,
성적이 좋았었고. 이런 생각들은
부질없어요. 단순히 '과거'일 뿐이죠.
과거 자신의 명성들과 실력에 매여있지
말아야 해요. 그렇게 전 과거의
강수연을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강수연
2015. 10.
특히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

솔병원은 KLPGA 공식지정병원으로서 KLPGA가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대회(각 투어별 전 대회)에 전담 의무팀(앳볼런스 1대, 간호사 1명, 트레이너 1명)을 파견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대회 기간 동안 부상 예방 및 처치를 위한 기본적인 Medical Service를 선수들에게 제공한다. 특히 정규투어 메이저 대회에는 전문의 1명과 의료장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운영한다.

솔병원 이 알려주는 골퍼를 위한 골프 피트니스

맨손으로도 잘해요 I

골퍼를 위한 근력 및 근지구력 강화 운동 (맨손 운동 중심)

글 _ 나영무(솔병원 원장) 자료 제공 _ 솔병원(02-2064-7575, www.sol-hospital.co.kr)

필자의 아버지가 평생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는 운동이 있다. 바로 맨손체조. 아침나절 10여 분 동안 하는 운동으로 팔순이 넘은 나이에 182cm의 건장한 체구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다. 맨손체조는 우리 몸을 유지하고 활동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트레칭은 물론 근력을 키울 뿐 아니라 뼈와 근육의 밸런스를 확보하게 돼 부상을 방지한다. 골프도 예외는 아니다. 맨손으로도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근육을 살펴보면 양팔을 사용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팔로스루에 까지 스윙 전 과정에서 대흉근(우리가 소위 '갑바'라고 하는 가슴근육)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팔을 몸통 안쪽으로 들어 올려 오른쪽으로 올릴 때만 사용한다. 반대로 다운스윙에서 임팩트까지는 같은 대흉근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근육의 힘과 유연성, 관절 부위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이번에는 골프에서 안정성 향상으로 일관된 스윙에 도움이 되는 근력 및 근지구력을 강화하기 위한 맨손 운동을 배워보자.

11월, 12월호에는 '골프 안정성 향상을 위한 근력 및 근지구력 강화 운동' Level I 단계를, 1월호에는 Level II 단계를 소개한다.



골프 안정성 향상을 위한 근력 및 근지구력 강화 운동 Level I

1 - 1 어깨 회전근 강화 운동



외회전 운동

- **방법** : ①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려서서 한 팔은 팔꿈치를 90° 굽히고 한 팔은 반대 손 앞에 고정한다.
- ② 굽힌 팔을 바깥 방향으로 밀면서 회전할 때 고정된 팔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서 시작 위치로 다시 돌아간다.
- ✖ **Point** : 10회, 3세트 실시한다.



내회전 운동

- **방법** : ① 어깨 너비로 다리 벌려 서서 한 팔은 팔꿈치를 90° 굽히고 한 팔은 반대 손 앞에 고정한다.
- ② 굽힌 팔을 안쪽 방향으로 당기면서 회전할 때 고정된 팔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서 시작 위치로 다시 돌아간다.
- ✖ **Point** : 10회, 3세트 실시한다.



1 - 2 티(T)자 만들기 운동

다운스윙 시 왼쪽 어깨를 강하게 수축시켜 강한 임팩트를 만들며, 어깨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운동이다.



- **방법** : ① 평평한 벤치 혹은 짐볼에 엎드려서 팔을 곧게 펴고 준비한다.
- ② 팔을 펴고 날개뼈가 척추 방향으로 모아지면서 몸과 팔이 T자가 되도록 팔을 옆으로 올린 상태로 6초 정지 후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간다.
- ✖ **Point** : 10회, 3세트 실시한다.

1 - 3 코브라 운동



- **방법** : ① 매트 위에 양팔을 앞으로 뻗은 후 엄지손가락을 위로 향한 채 엎드린다.
- ② 양팔과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 허리와 엉덩이에 힘을 집중한 상태에서 양팔을 곧게 펴고 뒤쪽으로 끌어 당겨 자세를 유지하며 6초 동안 멈춘 뒤 시작 위치로 돌아간다.
- ✖ **Point** : 10회, 3세트 실시한다.

1 - 4 크런치와 오블리크 크런치 운동



크런치(Crunch) 운동

- **방법** : ① 매트 위에 누워서 팔은 머리 뒤로 교차하고 다리는 90° 구부려 준비한다.
- ② 머리를 다리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며 복부를 수축하여 굽힌 상태에서 1초 정지 후 천천히 시작 위치로 돌아간다. (고개를 과하게 굽히지 않도록 한다)
- ✖ **Point** : 10회, 3세트 실시한다.



오블리크 크런치(Oblique crunch) 운동

- **방법** : ① 매트 위에 측면으로 누운 다음 양 무릎을 구부리고 위쪽의 손은 머리 뒤로 하고, 아래 쪽 손은 복부에 놓는다.
- ② 복부를 수축하여 옆으로 굽힌 상태에서 1초 정지 후 천천히 시작 위치로 돌아간다.
- ✖ **Point** : 10회, 3세트 실시한다.

1 - 5 곧게 다리 올리기 운동



- **방법** : ① 매트 위에 누워서 앞, 뒤, 안, 바깥쪽 운동을 위해 준비한다.
- ② 복부와 엉덩이 근육을 긴장시켜 앞, 뒤, 안, 바깥쪽으로 들어올려 6초 정지 후 천천히 시작 위치로 돌아간다.
- ✖ **Point** : 10회, 3세트 실시한다.

12월호에 이어집니다.

NH투자증권

올 가을 유망 투자 테마 4선

김동익 과장 (NH투자증권 상품전략본부 상품기획부)



연초 이후 주요 배당주 지수의 성과를 살펴보면 코스피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부의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과 배당소득세 개선 등 주주환원 정책 확대로 배당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데다 기준금리 1%대의 저금리 환경에 따른 정기에 금 금리와 배당수익률 간 격차가 줄어들면서 배당주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4분기는 전통적으로 배당주에 투자하는 시기로 최근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 매력도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당사는 배당주에 투자하는 펀드로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 펀드와 한국밸류10년투자배당 펀드를 추천한다.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 펀드는 시가 배당률이 높은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수익과 시세차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배당주를 Core고배당주, 대형 고배당주, 전통적 고배당주, 배당상향 가능종목, 우선주 등 5개 카테고리 구분하고 비중을 관리하여 매니저의 판단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였고 최근 증시 조정기간 중 성과 방어력도 우수하였다. 한국밸류10년투자배당 펀드는 안정적, 지속적으로 배당 지급이 가능한 저평가된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로 연간 1,600회 이상의 기업탐방과 다양한 기업가치 분석을 통해 업종내 최우량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 가치와 유동성을 검토하여 저평가된 고배당 종목에 탄력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
지난 3분기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힘든 기간이었다. 6월 중국증시 폭락을 시작으로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미국 금리 인상 불확실성, 유가와 원자재 시장 침체에 최근 폭스바겐 사태까지 각종 악재가 연이어 나타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크게 확대되었다. 상반기 우수한 성과를 보였던 글로벌 자산군들의 수익률도 조정을 받았다. 이러한 변동성 장세에서 대응하기 위해 당사는 배당주, 롱숏펀드, 인도채권, 뱅크론 등 4개의 유망테마를 선정하여 관련 상품을 추천하고 있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재조명 받는 상품이 있는데 롱숏 펀드가 바로 그것이다. 롱숏 펀드는 2013년 핫트렌드로 등장한 이후 설정규모가 2조 6,000억까지 급격히 성장하였으나 기대보다 부진한 성과로 자금이 유출되어 최근 1조 3,000억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 수익률이 뚜렷하게 개선되면서 8월 이후 자금이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

롱숏 펀드는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은 사고(long)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은 미리 빌려서 팔아(short) 차익을 남기는 펀드로, 롱숏전략을 운용하는 매니저의 역량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의 등락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이다.

당사는 롱숏 펀드로 KB코리아롱숏 펀드와 미래에셋스마트롱숏 30 펀드를 추천하고 있다. KB코리아롱숏 펀드는 국내 업종, 종목간 롱숏전략을 구사하는 펀드로 롱숏전략과 가치주 투자를 병행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주식 순 편입비율을 10~30%로 운용하여 변동성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투자자금이 증가하며 롱숏 펀드로의 자금유입을 주도하는 펀드이다.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 펀드는 국공채와 우량회사채에 70%를 투자하고 나머지 30%의 주식을 롱숏전략으로 운용하는 펀드로 '예금금리+α' 수익을 추구한다. 주식 순 편입비율은 10%로 유지하고 있으며 8월 국내증시 조정기간 동안 하락방어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꾸준히 이자가 나오는 인컴형 자산이 각광을 받는다. 신흥국 채권은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글로벌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는 상품이다. 당사는 신흥국 채권 중에서 인도 채권형 펀드를 추천하고 있다.

최근 많은 신흥국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반면, 인도는 오히려 국가 신용도가 상향된 국가 중 하나이다. 유가 하락의 최대 수혜국이기도 하고 안정적인 물가상승률과 환율, 그리고 '모디노믹스'라 불리는 개혁정책까지 인도 경제의 성장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인도 채권에 투자할 때는 인도의 환율을 살펴봐야 한다. 인도 루피화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낮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연 변동성 5% 수준으로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연초 이후 원화 대비 루피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달러화 대비 루피화는 점진적인 약세가 예상된다.

인도의 공공기관 채권의 금리는 연 7~8%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안정된 거시경제 환경과 높은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때 매우 매력적인 금리라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올해 연초 이후 인도 채권을 60억 달러 매입하면서 인도채권에 대한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약 35조원 규모의 외국인 국제 투자한도는 이미 소진되어 증액을 기다리고 있다.

국내 일반 투자자가 인도채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인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편리하다. 당사는 미래에셋 인도 채권형 펀드를 추천하고 있는데 동 펀드는 국내에서 인도채권에 투자하는 유일한 펀드이며, 인도 현지 통화 표시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자본이익 달성을 목표로 한다.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아 원화 대비 루피화 강세시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2015년 4월 이후 설정된 펀드로 최저한도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한국-인도간 조세협약으로 수익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이익금의 15.4%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든 이슈 중에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빼놓을 수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엘런 의장은 연초부터 수차례 올해 안에 미국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미국의 금리인상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올해 FOMC회의는 두 번 남아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올 연말 미국이 금리인상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다들 촉각을 세우는 이유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전 세계에 풀린 막대한 자금이 다시 안전한 미국 자산을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자금 이탈을 유발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 기준금리인상이라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당사는뱅크론 펀드를 추천한다. 뱅크론이란 투자등급 미만(S&P 기준 BBB-)의 기업들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 금융기관, 뮤추얼 펀드 등에서 조달하는 변동금리부 선순위 대출채권을 말한

다. 은행 또는 기관이 연합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성되는 기업대출을 유동화한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뱅크론을 발행한 투자등급 미만 기업들에는 힐튼, 크라이슬러, 델몬트 등 익숙한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뱅크론은 담보대출채권, 시니어론, 레버리지론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뱅크론 펀드는 4~6%의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수익과 낮은 변동성을 나타내며 상환순위에서 선순위라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뱅크론 펀드가 최근 각광을 받는 이유는 변동금리 채권이기에 금리 인상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뱅크론은 리보(LIBOR)금리에 따라 이자수익이 변동되는데, 리보금리가 상승하면 이자수익이 상승하는 구조이다. 미국 기준금리와 리보금리는 상관성이 높아 과거 미국 기준금리 인상시마다 뱅크론의 수익률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리보 Floor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리보 Floor란 리보금리가 1% 이상 올라야 뱅크론의 이자수익이 기준금리 상승과 연동되어 상승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이자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해야 하며 따라서 뱅크론 펀드에 단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본격적인 기준금리 상승 시기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당사는 뱅크론 펀드 중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특별자산펀드를 추천한다. 동 펀드는 하이일드채권, 배당주 ETF 등 여타 운용전략 없이 오로지 뱅크론과 뱅크론 관련 투자상품으로 운용한다. 또한 금리상승기, 시장변동성 확대 구간에서는 고등급 대출채권 비중을 높여 위험을 관리하고, 금리 상승기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지만 우호적인 신용환경에 있는 고금리 대출채권 비중을 높이는 유연한 운용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투자환경에서 모쪼록 당사의 4가지 유망 테마 투자를 잘 활용하여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수익을 얻기를 기대한다.

KLPGA 박아름 프로(회원번호 00405)

우리들의 특별한 이야기

**끈임없이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을 즐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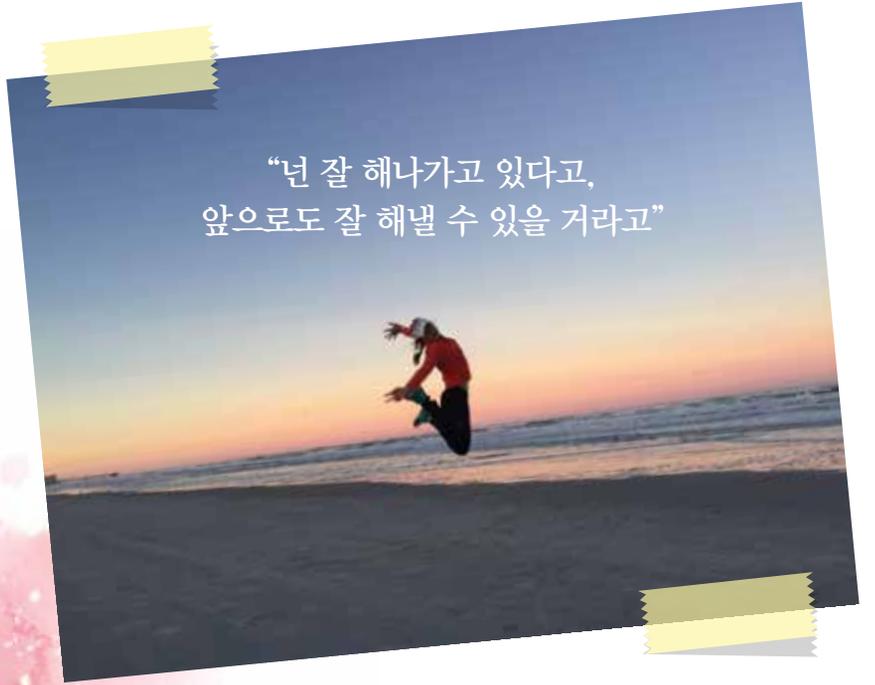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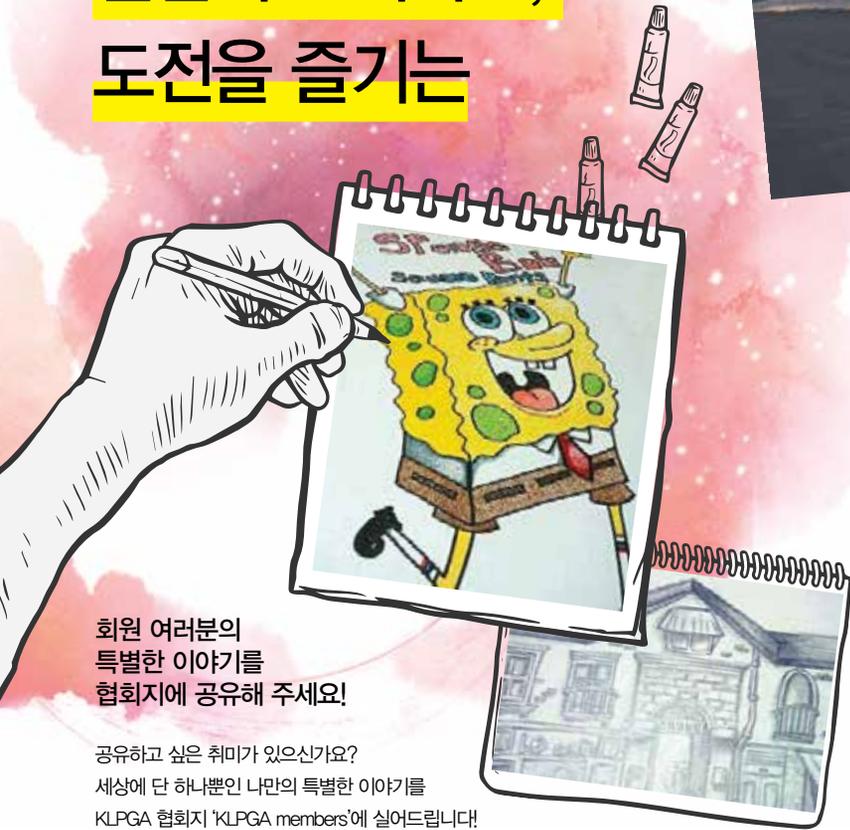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1987년 6월생

운동을 딱히 좋아하지도 않았기에 운동선수가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나는 아직도 내가 프로골퍼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소위 '세리 키즈'였던 나는 씨름선수 출신의 아버지를 닮아 체격조건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골프를 시작하게 되었다. 고강도 훈련과 학교 공부를 병행하던 나에게 매일이 너무 힘들고 고됨의 연속이었다. 그래도 열심히 했기에 나를 엘리트 코스를 밟아 나갔다.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프로테스트 한 번에 합격, 2부 투어에서 우승을 하며 상금랭킹 3위로 1부 투어 시드권까지 획득하며 정규투어에 입문하게 되었다. 그러나 1부 투어는 쉽지 않았다. 아마추어 시절과는 완전히 달랐다. 경기운영, 코스상태 등등 모든 것이 낯설었다. 적응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부상과 심각한 슬럼프가 찾아왔다.

지독한 슬럼프

허리 디스크로 인해 스윙조차 되질 않았고 멘탈은 점점 무너져 갔다. 그렇게 4년 동안 1부 투어를 뛰었지만 이렇다할 성적도 내지 못하고 결국 골프를 그만두게 되었다. 부모님께서서는 다시 준비하길 원하셨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일량한 자존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는 처음부터 골프가 너무 힘들고 재미없었기에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다.



회원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협회지에 공유해 주세요!

공유하고 싶은 취미가 있으신가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KLPGA 협회지 'KLPGA members'에 실어드립니다!

주말 나들이, 취미 생활, 투어 뒷이야기,
나만의 건강관리 팁 등 소소한 일상부터 혼자 떠난
여행, 가족 행사, 생일파티 등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순간들까지 회원들과 나누어 보세요. 서로 몰랐던
일상을 공유하며 회원들끼리 한층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회원은 A4용지 한 페이지 분량
자유주제 글과 관련 사진을
klpgamembers@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예쁘게 꾸며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레슨의 시작

선수생활을 그만두고 보니 할 수 있는 것이 골프레슨 밖에 없었지만 레슨을 시작하고 보니 레슨이 너무 재미있는 것이 아닌개. 뭔가 천직을 찾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골프 레슨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LPGA 티칭 프로그램 자격증과 각종 골프 트레이닝 관련 세미나를 많이 접하면서 골프에 새로이 눈을 뜨게 되었다. 10년 동안 골프를 쳤음에도 골프는 새로웠다. 내가 알던 골프는 극히 일부였던 것이다. 정신없이 레슨과 공부를 병행하며 바쁘고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었기에 견딜 수 있었다. 지방에서 생활을 했기에 세미나와 각종 정보를 들으려면 서울로 가야했다. 레슨을 하고, 쉬는 날은 서울을 오가며 돈도 몸도 이만저만 힘든 시간이 아니었다. 그렇게 갑상선 암이라는 병이 찾아왔고 내 목엔 선명한 흉터가 남게 되었다. 수술과 치료는 별거 아니었지만 평생 이 흉터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다.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이것저것 취미를 찾기 시작했다. 야구경기를 자주 보러갔고, 요리, 그림 그리기, 피아노 배우기, 등산, 수영 등등. 세상에는 이렇게 즐거운 일들이 많은데 나는 너무 골프라는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것을 깨닫고 난후 부터는 세상이 너무 즐거웠다. 하루를 살아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리스트를 만들어 하나하나 실천해나가려 노력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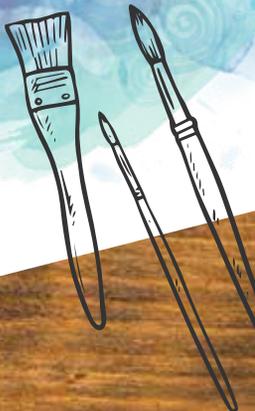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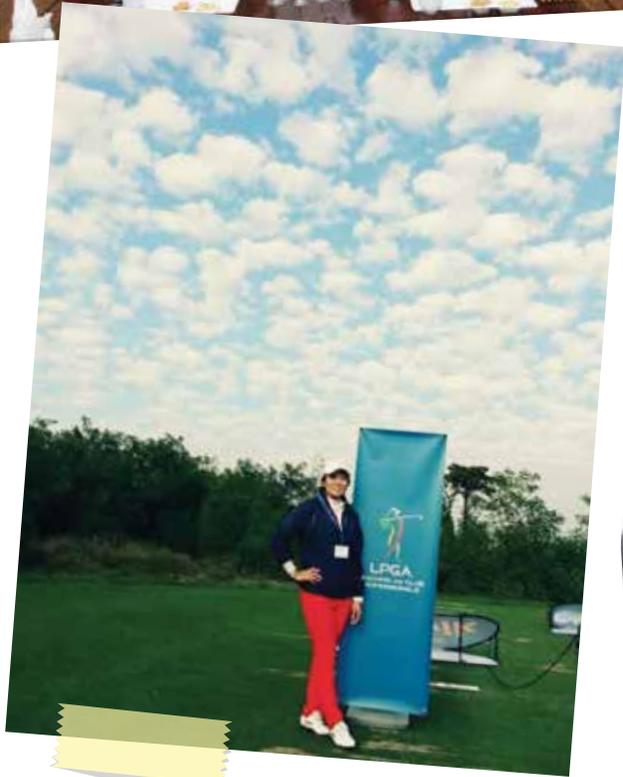


나는 얼마 전 다시 투어에 복귀했다

건강상 시작한 운동이었지만 우연찮게 다시 시합을 준비하게 되었고 현재 2부 투어부터 뛰고 있다. 정말 고맙게도 어릴 때부터 후원해주시던 정산컨트리클럽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로 하셔서 운동에만 임할 수 있게 되었다. 5년의 공백. 이 공백을 채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마지막 투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아주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다. 그 결과 준우승이라는 내 나름 뿌듯한 결과도 나왔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을 나는 믿는다. 대신 열심히 노력하고 즐겨야 하는 조건하에,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도전에 늦은 나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다. 우승도 하고 싶고 여자 야구단에도 들어보고 싶고 부모님이 하시는 횡집도 운영해보고 싶다. 나는 언제나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고 도전할 것이다. 그리고 항상 얘기해 주고 싶다.

"넌 잘 해나가고 있다고,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나에게.





글 _ 김윤성(KLPGA명예기자)

2015 KLPGA투어 루키 36인 그 두 번째 이야기



올해 처음으로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정규투어 무대에 진출한 신인선수는 36명입니다. 흔히 이들을 '루키(Rookie)'라고 부릅니다. 루키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36명의 선수들이 1부 투어에 오르기 위해 흘린 땀과 노력에 비해 몇몇 선수를 제외하고는 전혀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아쉬움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루키들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예선 탈락해 텔레비전 중계에서 얼굴을 찾아보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물론 프로선수는 성적으로 평가받습니다. 1부 투어를 뛰는 130여 명의 선수 모두가 언제든지 우승할 수 있는 우승후보입니다. 골프팬들의 작은 관심이 이제 막 꿈에 그리던 무대를 밟은 루키들과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대회 현장에서 느껴 기쁨을 준비했습니다.

상반기 막바지에 열린 지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015', '제15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두 대회에서 2015 루키 36명을 미니 인터뷰 했습니다. 루키 선수들에게 건넨 질문은 '정규투어 첫 진출 소감, 올 시즌 목표,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준비 그리고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가' 였습니다. 선수들 대부분이 "꿈에 그리던 무대를 밟아 기뻐고, 숏게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너 있고 인성이 착한, 반짝 스타보다는 투어에서 꾸준한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2015 KLPGA 루키 36인 스토리의 두 번째 주인공 24명은 박재희, 박주영4, 박지영, 박진희, 박채윤, 백소진, 서하경, 양혜린, 염혜인, 유승희, 음선재, 이기쁨, 이주미, 이지현2, 이해정, 이주연, 정다희, 조세미, 지영진, 지한솔, 최은우, 최혜정2, 추희정, 황예나 선수입니다.

(가나다 순서이며, 이름 뒤에는 나이, 소속사, 입회년도입니다) 신인들의 성적은 KLPGA 홈페이지(www.klpga.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20,골든웨이브,
2014년 입회)

● 1부 투어에 진출해 설레고 기분이 좋은 반면, 큰 대회다 보니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시합 나가는 게 무섭고 겁이 많이 났어요. 함께 뛰는 언니들의 도움으로 많이 극복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쇼트게임이 많이 부족함을 느꼈어요.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쉽진 않겠지만 올해 목표는 우승이에요! 성적이 좋으면 변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실력을 갖춘 바른 선수로 성장하고 싶어요.

● 이렇게 정규투어에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을 만큼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아이언샷 거리 계산과 그린이 빨라 어려워져 예선타락이 많았는데, 상반기 경험을 토대로 퍼트를 집중적으로 연습해 예선통과는 물론 내년 시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비 프로처럼 표정변화가 없는 멘탈이 강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



박주영4
(20,2014년
입회)

● 작년까지만 해도 갤러리로 왔는데 이렇게 큰 무대에 선 제 자신이 너무 뿌듯하고 존경하는 언니들과 함께 대회를 뛰어서 좋아요. 시즌 초반에는 시드유지가 목표였는데 경기를 계속하면서 성적이 안정권에 들어 현재 신인상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쇼트게임과 퍼트를 보강해 신인왕에 도전해보래요. 평소 가족이 기부 많이 하고 있어요. 저 또한 수입만큼 기부 많이 하는,

배풀 줄 아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성적도 좋아야겠죠.

● 5년 만에 어렵게 올라와서인지 너무 좋아요. 드림투어보다 환경도 좋고 코스도 매번 다르고 플레이가 재밌어요. 정신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하반기에는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플레이하려고요. 쇼트게임도 중요하지만 드라이버샷을 보강해 시드유지하겠습니다. 이정민 프로처럼 시원시원하게 플레이해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박진희
(24,2009년
입회)

● 1부 투어에 못 올 줄 알았는데 늦게라도 올라올 수 있어서 기뻐어요. 내년 정규투어 시드유지가 목표지만 1승과 루키인 만큼 신인상도 욕심입니다. 샷은 다른 선수보다 괜찮은데 퍼트 실수가 많았어요. 하반기에는 실수를 줄여야 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롤 모델인 호주의 백전노장 캐리 웹처럼 저는 한국의 '캐리 웹'이 되고 싶습니다.



박채운
(21,2013년
입회)

● 항상 꿈꾸었던 무대에 올라와서 너무 좋았는데, 무릎이 안 좋아 재활하느라 상반기 대회에 많이 참가하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1부 투어는 확실히 달라요. 오랫동안 뛰고 싶어요. 하반기에는 적응하는 기간이라 생각하고 우선 예선통과를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적에 연연하니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아서 매순간 즐기면서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한결같은 선수, 항상 겸손하고 사랑받는 플레이어가 되고 싶습니다.



백소진
(21,2013년
입회)



서하경
(22,대방건설,
2013년 입회)

● 각자 플레이에만 집중하는 분위기가 차갑게 느껴져서 처음엔 적응이 안됐는데 이젠 좀 괜찮아졌어요. 1승을 하면 좋겠지만 상금순위 80위면 만족해요. 대회를 거듭할수록 선수들을 보면서 배우는 게 많아서인지 실력이 느는 게 느껴져요. 시드전 가도 자신 있어요. 샷 자신감이 없고, 스코어에 감정 기복이 심해요. 제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평정심을 유지해서 빨리 극복하고 싶어요. 오랫동안 투어를 뛰면서 꾸준히 잘 했으면 좋겠어요.

● 동계훈련 후 부상으로 인해 시즌 초반에 힘들었는데 쇼트게임, 코스매니지먼트가 날로 좋아지고 있어요. 부상 회복 후 샷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공략할 때 생각이 많은 게 탈이죠. 하반기에는 쇼트게임에서 루키답게 공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제가 무남독녀여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인지 드림투어때 부터 상금의 10%를 기부하려고 모으고 있어요.

오랫동안 투어생활을 해서 제가 받은 사랑 어려운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골프를 즐기고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선수로 성장하겠습니다.



양채린
(20,교촌F&B,
2012년 입회)



염혜인
(23,2011년
입회)

●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많았어요. 경쟁이 치열하지만 매주 대회가 새롭고 즐거워요. 내년 시드유지하려면 상금순위를 높여야 하는데 전반기에 생각보다 많이 부족했어요. 샷보다는 멘탈이 잡히지 않아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하반기에는 집중해서 제가 세운 목표에 한걸음 다가겠습니다. 예의 바르고 인성이 모범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유승희
(22, 2012년
입회)

● 주니어 시절부터 꿈이었던 무대여서 긴장하기보다는 설렘이 더 크고, 매주 대회 출전하는 게 연습보다 좋아요. 우승보다는 시합에 최선을 다해 꾸준히 톱 10에 이름 올리는 게 목표죠. 상반기 대회 평가해 보니 쇼트게임은 정말 중요하고요, 비거리도 많이 늘려야겠어요. 분위기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강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 2부 투어인 드림투어 보다는 재밌고, 시합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올해 목표는 내년 시드유지였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하반기 모든 대회 예선통과가 절실해요. 대부분의 루키들처럼 저 또한 쇼트게임이 잘 안됐어요. 빠른 그린에 대비해 쇼트게임 연습에 집중하면서 체력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오랫동안 1부 투어에서 밝고, 매너있고, 실력 좋은 선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기쁨
(21,골프랩,
2011년 입회)

● 아마추어, 드림투어와 대회 분위기가 달라 신세계에 온 느낌이에요. 개인 캐디에 정말 많은 갤러리 분들이 오셔서 행복합니다. 상반기에는 기대감도 크고 욕심도 많았어요. 퍼트를 보완해서 하반기에는 예선 통과해 내년 시드유지에 힘쓰겠습니다. 신인왕 아직 포기하지는 않았어요.(웃음) 주니어 선수들에게 멘토가 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 정규투어는 꿈의 무대였는데 경험이 부족해 아직 적응 중이에요. 상반기에 몸이 안 좋아 대회 참가를 많이 못해서 아쉬웠는데, 하반기에는 메이저 대회도 많아 체력관리 열심히 해서 상금순위 상위권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우승보다는 내년 투어 시드유지가 우선이에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이지현2
(19, 2014년
입회)



이혜정
(20, A+에셋,
2014년 입회)

● 코스상태가 최상인 곳에서 플레이하니 기분 좋고 재밌어요. 예선탈락만 아니면요.(웃음) 처음엔 모든 루키처럼 목표가 신인왕이었는데,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내년 시드유지도 쉽지 않아 걱정이랍니다. 퍼트는 자신 있는데 코스가 길어져서 하반기에는 체력 보강도 필요해요. 경기를 즐길 줄 아는 골퍼, 밝은 선수로 골프 팬들에게 기억되고 싶어요.

● 1부 무대에 일찍 올라온 것만으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적 스트레스를 받지만 1부 투어에 대한 자부심이 커요. 제가 1라운드 성적은 좋은데 2라운드부터 안 좋아요. 실수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 멘탈에서 무너지는 경향이 많았죠. 너무 신인왕을 의식해서인지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지 못했어요. 국가대표였던 지난해 인천아시아게임 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한 기억이 반복될까봐 걱정이예요. 그래서 성적보다는 인성 좋고 매너 있는 선수로 오랫동안 팬들의 응원 받으며 즐기면서 골프하고 싶어요.



인주연
(18, 2014년
입회)

● 우승하면 좋겠지만 내년 시드 확보가 목표인데, 쉽지 않네요. 정규투어가 처음이다 보니 긴장이 많이 돼요. 드림투어보다 그린이나 코스 난이도가 어려워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모든 루키들처럼 고민은 쇼트게임이죠. 재밌게 즐기면서 치려고요. 성적도 좋으면서 인성이 바른 선수라는 소리 듣고 싶습니다.



정다희
22, 대방건설,
2014년 입회)

● 잘 치는 선수들과 매주 경기를 하다 보니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신인왕이 욕심나지만 연연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쇼트게임을 보완해서 자신 있는 플레이를 하다 보면 성적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꾸준하게 잘 치는 선수가 되고 싶고, 최종 목표는 USLPGA 진출이에요.



조세미
(20, 2014년
입회)



지영진
(21, ABC라이프,
2012년 입회)

● 국내 최고의 투어잡아요. 좋은 성적내면 더 좋겠죠. 하지만 욕심을 부리면 안되더라고요. 초반 성적이 좋아 신인왕을 꿈꿨는데, 바로 예선탈락이 많아 '예선통과만 하자' 초심으로 돌아왔어요.(웃음) 어프로치, 퍼트 난조로 타수를 줄이지 못했어요. 드라이버 샷도 들쭉날쭉해서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애니카 소렌스탐처럼 통련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 매주 대회에 참가하면서 배우는 게 많아서 투어 생활 자체가 너무 좋아요. 미디어데이에서부터 박결 선수랑 신인왕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다 보니 생각했던 만큼 플레이가 잘 안됐어요.(웃음) 하반기에는 신경 쓰지 않고 상반기 실수들을 보완해서 저만의 플레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골프 실력이 꾸준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선수로 남고 싶습니다.



지한솔
(19, 호반건설,
2014년 입회)

● 시드유지가 우선이지만 하반기에 더욱 분발해서 신인왕도 노려보고 싶어요. 매주 시합을 하다 보니 체력 소모가 많아요. 연습만큼 잘 쉬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쇼트게임과 퍼트가 안 돼 스코어 줄이지 못했는데 집중해서 연습해야죠. 매주 새로운 코스를 만나 어렵지만 이 모든 생활이 즐거워요. 그런 만큼 스코어를 즐기면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로 오랫동안 투어에서 활약하고 싶습니다.



최은우
(20, 볼빅,
2014년 입회)



최혜정2
(24, 2009년
입회)

● 6년 만에 1부 투어 왔어요. 기다렸던 곳인 만큼 설레고 재밌지만 한편으론 조바심이 나오. 드림투어와는 코스, 환경도 다르고 개인 캐디 등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요. 우승보다는 시드유지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체력관리 잘해서 메이저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요. 제가 폭발적인 힘은 없어서(웃음) 오랫동안 꾸준히 투어에서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 1부 투어요? 정말 재밌어요. 점프투어(3부 투어), 드림투어(2부 투어)에 비해 어렵지만 다시 내려가기 싫어요. 오랫동안 남아 있고 싶어요. 신인왕과 함께 1승을 목표로 세웠는데, 그린 주변 어프로치샷 실수가 많아 성적 하락의 원인이 됐어요. 샷 위주로 더 연습해서 예선통과 하다 보면 1승도 보이겠죠? 골프선수로서 외국투어 진출은 당연한 꿈이고요, 열심히 하는 선수, 골프를 잘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추희정
(22, JDX,
2011년 입회)

● 프로 4년차에 1부 무대에 와보니 새로운 환경에 무엇보다 골프가 재밌어요. 생각보다 전장이 길고 러프도 깊어 어려웠어요. 상반기에 샷이 불안해서 플레이를 어렵게 했는데, 하반기에는 정교한 드라이버샷을 하도록 연습해야죠. 반짝 빛나는 선수보다는 통련해서 한국에서 1위, 최종 꿈은 세계 1위가 되겠습니다.



황예나
(22, 2011년
입회)



이 기사가 나가면서 루키들의 성적이 좋아졌습니다. 예선통과도 많아지고 톱10 진입도 상반기에 비해 많아졌습니다. 루키들을 직접 만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 터뷰하면서 선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회장을 가면 다른 선수보다는 루키들의 성적이 더 궁금했고,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루키들은 분명 내년에 더 좋은 실력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루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No 카페인! Yes 에너지! 피로를 타파하는 황금빛 아몬드초코 셰이크

장시간 라운드를 도는 골퍼들의 일등공신, 에너지 음료 레시피

그 어떤 운동선수라도 장시간 운동을 하면 지치기 마련, 프로 골퍼들도 마찬가지다. 매서운 겨울 날씨에 3시간이 넘는 동안 필드를 돌다 보면 으슬으슬한 추위만큼 집중력도 떨어진다. 곳은 날씨에도 야외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프로골퍼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에너지 음료. 체력과 정신력 모두를 잡는 레시피를 알아보자.

글 _ 박지원

아몬드 초코에 숨은 황금빛 매력, 바나나

바나나 2개를 먹으면 90분 동안 운동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바나나는 열량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허기진 속을 채우기에 좋다. 공복감을 쉽게 채워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필드의 이동으로 인해 지친 체력을 순간적으로 보충해 주기도 부족함이 없다. 또한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경련 예방에 효과적으로 겨울철 굳은 몸을 유연하도록 도와준다.

견과류의 지방과 건강한 단맛의 조화

아몬드의 지방과 초콜릿의 단맛은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사실 이 둘이 만나면 찰떡궁합을 자랑한다. 아몬드 속 비타민 E는 세포를 보호하여 혈액의 순환을 돕고 초콜릿은 단백질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테오브로민이 풍부해 운동량이 많은 운동 시 필수 간식으로 꼽힌다. 이러한 둘이 만나면 지쳐버린 체력은 보충하고 흔들리는 집중력을 높이는 환상의 짝꿍이 된다.

일등 레시피! 황금빛 아몬드초코 셰이크

오랜 시간 동안 필드를 도는 동안 든든한 서포트를 해 줄 황금빛 아몬드초코 셰이크는 풍부한 효능과 다르게 만드는 법이 간단하다. **우유 한 컵에 바나나 1개, 초콜릿 20g, 아몬드 10알을 넣고 믹서기에 가는 것만으로도 완성이 된다.** 취향에 따라 재료의 비율을 조절 하면서 달콤한 맛에서 오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추천한다. 다만 아몬드와 초콜릿의 경우 하루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좋다. 유익한 성분이 들어있더라도 과도한 지방과 당분의 섭취는 금물!



FAN LETTER

그녀에게 전해주소
안신애



아름다운 미녀골퍼, 안신애 화이팅!



매주 대회현장에서 안신애 프로를 응원합니다!

메이저 퀸 안신애 프로에게

정말 오래간만에 편지를 써 봅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안신애 프로에게 말입니다.

시합이 있는 매주를 거의 다 만나서 웃을 일이 있음 즐거워하고, 게임이 잘 안 풀릴 때는 같이 힘들어 하는 선수와 팬 사이 아닌, 이제는 거의 가족같은 사이가 되어버린 사이에서 글로 마음을 표현하려하니 많이 쑥스럽네요.

저에게는 매주마다 설레는 가슴을 안고 만나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녀린 몸에 파워풀한 매력을 발산하는 당찬 여인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의상으로 내눈에 비칠런지,

이번에는 어떤 멋진 샷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이번에는 얼마만큼 화려한 미소로 팬들에게 답하러는지,

모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저 아닌 모든 팬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기가 있는 날 아침에 만난 당신의 환한 미소에 답하고 경기 중 상념에 잠겨있다면 고뇌에 함께 잠겨있고, 오후에 모든걸 내려놓은 당신에 의연한 모습에 함께 묻어가는 당신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한답니다.

2015년 9월 13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5년만에 메이저 대회에서 극적인 플레이로 우승을 따낸 자랑스러운 당신을 말입니다.

곁에서 지켜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저에게는 울보라는 별명도 생겼네요.

우승을 하고 저에게 달려와서 벅찬 감동으로 포옹을 한 모습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나아가서 더욱 더 많은 우승을 일구어내시고, 우리나라 아닌 전세계 모든 팬들에 뇌리속에 아름다운 미녀골퍼, 사랑스러운 미녀골퍼로 영원히 기억되길 바랍니다.

항상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남아있길 바랍니다.

안신애 화이팅!

안신애 포에버~



선수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작성할 기회를 드립니다!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 좋아하는 선수와 얽힌 특별한 추억 등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우수 팬레터로 선정된 글 한 편은 매 달 'KLPGA members' 지면에 실릴 예정이며 선정되신 분께는 올해 협회지를 매달 한 부씩 덕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팬레터를 kpgamembers@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모자에 받은 싸인, 기념품 등이 있다면 함께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호에는 해당 선수의 인증샷과 소감도 함께 실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From 10월호 협회지에 실린 팬레터와 인증샷 찍는 이승현



선수한테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팬이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대회장에오셔서 갤러리를 하시고 잘했다고 다독여주고 칭찬해 주실 때 결과에 상관없이 뿌듯함이 느껴져요. 힘들고 지칠 때도 포기하지 않는 큰 힘이 되죠.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팬분들은 저에게 정말 특별해요. 항상 감사하고 좋은 플레이로 보답하고 싶어요.

<  영어
JOE 류(조 류) 강사

Hey, Rachael! Do you want to go jogging together?
레이첼! 같이 조깅할래?

No, I'll pass this time. But, why all of a sudden?
이번엔 빠질게. 근데 갑자기 왜?

I need some exercise.
I think I'm gaining weight these days.
운동이 필요해.
요즘 살 찌는 거 같아.

I see. Are you planning to go jogging every day?
그렇구나. 매일 조깅 할 계획이야?

Yeah. I hope it helps me drop some weight and also give me more energy.
응, 살도 좀 빼고 에너지도 얻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Well, I'm a little tied up today, but I'll join you next time.
음, 오늘은 내가 좀 바쁜데 다음에 꼭 같이 할게.

Ok. Take care.
그래, 잘 지내.

<  일본어
김수진 강사

おはようございます。
おはようございます。
오하요고자이마스
안녕하세요.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いい天気ですね。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いい天気ですね。
오하요고자이마스. 이이 텡기데스네
안녕하세요. 좋은 날씨네요.

そうですね。この近くにジョギングするのにいい所ってありますか。
そうですね。このちかくにじょぎんぐするのにいいところってありますか。
소오데스네. 고노 찌카꾸니 조깅구 스루노니
이이도고루떼 아리마스까?
그렇네요. 이 근처에 조깅하기에 좋은 곳 있나요?

ありますよ。私もちょうどそっちに向ってるん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ありますよ。わたしもちょうどそっちにむかってるんで、いっしょにいきませんか。
아리마스요. 와따시오 초오도 쏜띠니 무갓떼루데,
잇소니 이끼마쎄까?
있어요. 저도 마침 그 쪽으로 가는 길이니, 같이 갈까요?

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どんな所なんですか。
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どんなところなんですか。
아, 아리가토고자이마스. 돈나 도포로난데스까?
아, 감사해요. 어떤 곳이에요?

大きな池もあるし、かなり広くていいですよ。
おおきないけもあるし、かなりひろくていいですよ。
오오끼나 이끼모 아루시, 카나리 히로꾸테 이이데스요.
큰 연못도 있고, 꽤 넓어서 좋아요.

<  중국어
권보민 강사

你最喜欢什么运动?
Nǐ zuì xǐhuan shénme yùndòng?
넌 무슨 운동을 제일 좋아해?

运动? 我想跑步是我的最爱吧, 尤其是慢跑!
Yùndòng? Wǒ xiǎng pǎobù shì wǒ de zuì ài ba, yóuqí shì màn pǎo.
운동? 달리기 제일 좋아해, 특히 조깅!

为什么? 慢跑有什么好处吗?
Wèi shénme? Mǎnpǎo yǒu shénme hǎochù ma?
왜? 조깅하면 뭐 좋은 점 있어?

那可多了, 首先不用花钱, 而且在哪儿都能跑, 还有慢跑是有氧运动, 对身体也非常好!
Nà kě duō le, shǒuxiān bùyòng huā qián, érqié zài nǎr dōu néng pǎo, hái yǒu mǎnpǎo shì yǒuyǎng yùndòng, duì shēntǐ yě fēicháng hǎo.
그거야 완전 많지! 일단 돈 안 들지, 아무데서나 뛸 수 있지, 그리고 조깅은 유산소 운동이거든, 건강에도 굉장히 좋아.

是吗? 那对减肥也有帮助吗?
Shì ma? Nà duì jiǎnféi yě yǒu bāngzhù ma?
그래? 그럼 다이어트에도 도움 되니?

你看我就知道了, 我都瘦了5公斤了呢。
Nǐ kàn wǒ jiù zhīdào, wǒ dōu shòu le wǔ gōngjīn le ne.
나 보면 알잖아. 나 벌써 5 kg이나 빠졌는걸!

哈哈! 对! 那从今天起, 我也开始跑步吧!
Hā hā hā! Duì duì! Nà cóng jīntiān qǐ, wǒ yě kāishǐ pǎobù ba!
하하하! 맞아 맞아! 그럼 오늘부터 나도 달리기 시작해야겠다!

📍 틀린그림찾기



Quiz & Quiz 사진 속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지난 10월호 틀린그림찾기 **당첨자 수진** 님에게는 KLPGA에서 준비한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KLPGA TOUR 2015 SPONSORS & PARTNERS

KLPGA를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KLPGA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규 투어 타이틀 스폰서



드림 · 점프 · 시니어 투어 타이틀 스폰서



마케팅 파트너





ALLFORYOU



Play with allforyou!